



작은사랑의 큰 실천

세계속의 **중부권 중심대학**
우리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충북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속의 중부권 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충북대학교에 사랑의 실천을 호소합니다.



충북대학교는 50여년의 역사와 함께 진리탐구의 전당으로서, 진리·정의·개혁의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을 목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 충북대 가족은 최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부혁신과 국내외 학술교류 등을 확대하여 세계속의 명문대학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교가 세계 일류대학과 어깨 나란히 할 수 있는 획기적 발전을 기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충북대학교를 사랑하는 동문, 교직원, 학부모, 기업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의 후원인 여러분의 정성어린 사랑과 후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의 큰 애정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충북대학교 총장 신 방 응



거듭나겠습니다
세계속의 중부권 중심대학

기탁안내

- 홈페이지 이용**
http://www.chungbuk.ac.kr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농협 304-01-074681
예금주 : 충북대학교발전후원회
- CMS**
계좌번호 : 농협 304-01-074681
예금주 : 충북대학교발전후원회
- 직접방문**
충북대학교 기획연구처 기획과(본부 2층)
Tel 043-261-3273 / 261-2949
- 방문요청**
Tel 043-261-3273 / 261-2949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忠北大同門會報

真理
正義
開拓

발행인 : 강신우 편집인 : 김내수 발행소 : 충북대학교충동문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전화 : 043-261-3121 FAX : 043-272-3122 인쇄처 : 중부출판사

[충북대학교발전후원회 창립총회]

12월 22일 오후6시 모교 개신 문화관에서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홍재형(국회의원) 발전후원 회장, 김천호 발기인회 의장(충청북도 교육감), 강신우 총동문회장, 신방웅 모교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모교는 개교 51주년을 맞아 세계속의 중부권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대학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지원사업,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사업, 도서관 확충사업 등을 실시할 재원 마련을 하고자 발전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78년이후 현재까지 156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1세기 대학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발전후원회를 창립하여 발전기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신방웅 총장은 "모교가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해 DREAM 21을 기조로 한 제5차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후원회의 역할 뿐 아니라 동문, 기업체,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초대 발전후원회장으로 추대된 홍재형의원은 "모교가 세계속의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과 정성을 다해 후원해 줄 것과 지역

민들의 관심과 정성이 있을 때 충북대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이다"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때 기탁·약정된 기금은 약 24억원이었다. 고액 기탁자로는 (주)바이오레넥스, 김흥은교수, 이호복사장, (주)LG-Nsys박계현사장, 충동문화임원

진, (주)렉스진바이오텍 박종진사장 등이 기탁하였으며, 직원들도 직원회(회장 김형식) 주관으로 충북대사랑1인1구좌(월1만원)이상 갖기 운동을 벌여 6,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이 숭선하여 모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002학년도전기학위수여식

2002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 2월 25일과 26일 신방웅 총장, 강신우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교수 및 교직원, 학부모 및 동문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금년에는 단과대학별로 25일 오전 11시에 학사학위수여(3,020명)식이 있었고, 26일 오후 2시에는 석사학위(561명), 박사학위(69명) 수여식이 개신문화관에서 있었으며, 세명대학교 권영우 명예총장이 명예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2003학년도 신입생(3,703명) 입학식이 3월 3일 오전 11시 모교 대잔디밭에서 신방웅 총장, 강신우 총동문회장, 박청홍 기성회장, 본부 처실장 및 각 대학 학장을 비롯한 교수 및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신우 총동문회장은 축사와 함께 신입생 대표 김진태(의학과·전체수석)군을 비롯한 모든 입학생에게 모교 뺨지를 증정하였다.



주요내용 목차

- 총동문회장 신년사 2
- 총장 신년사 2
- 동문회 소식 / 총동문화행사 2
- 동문회 소식 / 산하동문화행사 3
- 동문동정 4·5
- 모교 소식 6·7
- 인터뷰 / 임태영 재천시장, 광정수 교장 8
- 역사기행 / 교토의 어느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9
- 동문단상 10
- 2002회비 납부자 명단 11
- 발전후원회비 기탁자 12·13
- 외부인사 및 교원 기탁자 14
- 직원기탁자 15
- 광고 / 충북대학교 발전위원회 16

총동문회장 신년사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박찬 환희와 감격의 연속이었던 壬午年을 뒤로하고, 희망찬 癸未年의 새아침을 맞아 당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어가는 동문회원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모교에도 많은 변화와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신방용 총장님의 취임과 함께 모교 발전을 위한 모교발전후원회가 동문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범하였으며, 새로운 반세기기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교는 이젠 세계 속의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문회는 아직 타 대학처럼 활성화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망의 2003년은 모교의 발전에 부응하고자 총동문회에서는 보다 더 내실 있고 충실한 동문회로 발전하기 위해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문회 발전기금 조성, 평생회비 모금의 극대화, 동문카드 발급을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조직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능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동호인 행사 및 체육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늘 그렇듯 이 같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문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동문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계미년에는 충북대학교 총동문회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겠습니다.
 개인 동문가족여러분!
 우리에게 젓과 고기와 달을 제공해주고 義로운 희생을 감수하는 양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감사주며 先公後私 · 輕利重義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 강 신 우

총장 신년사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2003년을 시작하는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에 밝은 빛을 쏟으며 힘차게 솟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대학교를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가 그 동안 축적해온 명성과 전통을 발판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02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대학으로서나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전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 덕택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출입로 확장 공사도 목지가의 기증으로 이루어 졌고, 오창 첨단과학산업단지에 59,000평의 부지를 구입하여 등기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의 제2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병원 응급실 건축공사 재개를 위한 정부예산 약 30억원과 대학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많은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기초학문분야 12과제에서 교육부로부터 42억여원을 지원 받아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였고, 국제화 · 세계화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 외국 자매대학과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속의 우뚝 서는 선진대학을 지향하면서 지난 11월 처음으로 발전후원회행사를 성대하게 치러 약 26억원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모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동문 여러분의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집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대 사랑 1동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협조해 주신다면 대학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멀리 있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의 명문대학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충북대학교로 도약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창조적 개혁과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금년에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대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교내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내의 조직구조, 운영체제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혁신하여 교육 · 연구부문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 업무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엄정한 학사관리와 맞춤형 교과과정 개편 등을 통해 알찬 실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며, 교수와 직원, 학생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대학을 건설하는데 힘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후생 · 복지에 대한 개선 및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후생 ·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관 · 학 · 연 · 산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학문적 생산성과 현실적용의 실용성을 증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대학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분야를 점차 확대육성하고 대학의 창의적인 지식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학교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응집된 힘을 보여주어 충북대학교의 지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합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 대학으로 성장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대학교 동문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충북대학교 총장 신 방 용

동문회소식

[총동문회 행사]

■ 제49차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지난 3월 22일(토) 오후4시 제49차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정기총회가 강신우 총동문회장, 신방용 총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청풍명월에서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동문회 활동에 공이 지대한 자랑스런 동문에 대한 축하패와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2002년도 사업



보고 및 세입 · 세출 결산 심의,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 심의가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개신상공인회(회장:신민철)에서는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50만원,고시원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공로패 수상동문
 김정환(농공69) 농업기반공사 동문회장
 황재봉(농학82) 2002년도 개신상공인회장
- ▶축하패 수상동문
 정승근(농학62) 제7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
 안재경(약학72) 3740지구 모터리클럽 총재 취임
 박진우(전기88) 제38회 기술고시 합격
 신수철(재료90) 제39회 변리사 합격
 송대현(교원석 교육행정80) 교육위원 당선
 고규강(교원석 학교상담99) 교육위원 당선

■ 6.13지방선거 당선동문 축하연

7월 9일 오후7시 모교 본관9층 청풍명월에서 6.13지방선거 당선동문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모교 신방용총장님을 비롯한 처장, 학장님들과 강신우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학생대표와 지방선거 당선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를 빛낸 당선자에 대한 축하패 수여와 총동문회장의 인사, 총장님의 축사 그리고 당선자를 대표하여 임태영 제천시장의 답사로 성대히 열렸다. *6.13지방선거 당선동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체장
 임태영 (화공77 제천시장) 김문배 (행정대학원 95 과산군수)
 김경희 (행정대학원 11기 진천군수)

◎도의원
 정상혁 (임학 60 보은군2) 한창동 (농학 73 청원군1)
 이기동 (경영 79 음성군1) 이강일 (경영 87 서울시의원)
 황태모 (산업대학원 95 청주시2) 박종갑 (행정대학원 12기 청원군2)
 장주식 (경영대학원 20기 진천군2) 정윤숙 (경영대학원 20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서병각 (농학 59) 이대섭 (임학 63) 박승순 (농공 67)
 조민동 (연초 69) 이한철 (체육 72) 연만홍 (농학 73)
 변장섭 (임학 74) 황재봉 (농학 82) 신성우 (행정대학원 12기)
 조남수 (법무대학원 2기) 이만목 (경영대학원 15기)
 서신웅 (행정대학원 7기) 오석영 (행정대학원 11기)

강원모(경영대학원 9기)	박종성(전문농업인 1기)
박종구(행정대학원 1기)	김현문(행정대학원 11기)
최광욱(행정대학원(여)3기)	김영근(경영대학원 3기)
황원선(경영대학원 6기)	박종룡(경영대학원 12 행정대학원 13)
오해진(경영대학원 8 전문농업인 1)	김경수(경영대학원 11기)
조방형(전문농업인 1기)	도정선(전문농업인 2기)
김광철(법무대학원 4기)	김영원(행정대학원 4기)
박범출(전문농업인 2기)	엄대섭(행정대학원 9기)
박희남(행정대학원 9기)	유성훈(산업대학원 재학중)

■ 송대현(교원석80),고규강(교원석99)등문 교육위원 당선

7월 11일 충청북도교육위원 선거에서 송대현(전 청주교육장)등문과 고규강(한국멀티미디어 대표등문)이 당선되었다. (연락처:송대현:사직1동236-13, 266-4422 / 고규강:개신종 두진한술A, 101-803, 265-9061, 011-9844-9061)

■ 모교총장과의 간담회

6월 26일 모교 간부진과 총동문회 임원간 간담회를 '청풍명월'에서 가졌다. 새로 모교 총장에 취임한 신방웅 총장님을 비롯한 이영진 교무처장, 신영철 학생처장, 박외숙 기획처장과 강신우 총동문회장, 김주섭 수석부회장, 류길영 사무처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모교 사랑과 발전 그리고 동문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협조하여 모교가 세계속의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충주·제천시부 순방

총동문회의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8월 21일 오후 1시에 충주지부 동문과의 간담회를 수안보 명산기지에서 안재경(약학70, 국제토탈리클럽37.40지구총재), 김홍식(국어72, 여성여중 교장), 김진욱(행정77, 충주KBS부장)등문을 비롯한 10여명의 동문과 모교 신방웅총장과 강신우총동문회장, 류길영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저녁6시 30분에 제천시부 동문과의 간담회를 의림지 벚꽃마을에서 권희수(농학51, 전제천시장), 나극천(약학57, 영진약국), 송재광(연초69, 제천시부 총무), 김원한(연초70, 세명대학교 사무처장), 변상권(영어70, 제천교육청 장학사), 엄태영(화공77, 제천시장), 이재경(토목78, 대원대학교 학생복지처장), 김인수(행정82, (주)시스퍼 대표)등문을 비롯한 30여명의 동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충주, 제천시부를 순방하여 동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모교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였으며,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 제10회 총동문체육대회

10월 20일(일) 제10회총동문체육대회가 12개 직장 및 직능단체 1,000여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회 열렸다. 이날 경기는 배구, 축구, 줄달리기, 800m계주가 있었으며, 추가 프로그램으로 가족장기자랑, 어린이게임, 임원 및 대표자게임 등으로 동문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경기 결과 종합우승은 흥덕연구소(회장:최현호), 종합준우승 농업기반공사(회장 김정환), 종합3위는 청주시청(회장:김효경)이 차지하였고, 가족장기자랑에서는 장호창(부설중)등문이 우승 부상으로 자전거를 받았으며, 특별상에 한국도로공사, 응원상 삼화전기, 장려상 농협, 정민군청이 수상하였다. 경품 추첨에서 최고의 행운상(29인치 TV)은 이종천(토목76 농업기반공사)등문에 돌아갔다. 한편 모교 신방웅총장과 신영철 학생처장이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각팀동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 찬조자 : 신방웅총장, 강신우(농학61), 노재섭(약학61), 정동주(농학63), 서정원(농학65), 유인호(영교70), 정만영(체육70), 양재욱(약학70), 박도희(수교71), 안재경(약학72), 유승원(체육75), 최장규(축산75), 유운기(행정79), 김진상(토목79), 이면재(약학80), 김상구(영문80), 김동승(회계80), 김우성(법학81), 신민철(토목81), 최현호(법학81), 조성록(입학82), 손태영(법학82), 장윤식(식품82), 성기정(법학82), 김명녀(회계89), 김성배(행정석95), 김홍득(행정석97), 손희원(행정고15), 구천서(경원최8), 박종천(경원최27), 한태수(경원최8)

■ 제2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11월 20일 제2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골프동호회(회장 연광석) 주관하에 청주그랜드C.C에서 3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 결과 메달리스트 이시재(생물80)등문, 롱게스트 장봉우(체육76)등문, 니어리스트 김주섭(토목70)등문, 행운보기사 권민인(체육84)등문, 행운과상 박우석(경영86)등문, 행운상 황동민(안전87)등문이 수상하였으며, 간담회에 모교 신영철학생처장이 참석하시어 충북대학교 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참여를 당부 모든 동호회원이 모교발전추진위원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 2002충북대학교총동문회송년회

12월 28일 오후6시 모교 청풍명월에서 '2002년도총동문회송년회가 70여동문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강신우 총동문회장의 송년사와 모교 신방웅총장을 대신한 신영철학생처장의 축사, 유길영사무처장의 동문회 사업보고 그리고 모교를 빛낸 자랑스런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하였다. 축하패 수여동문은 다음과 같다.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자: 이항열(환경공90), 박선일(법학94) 제8회 지방행정고시 합격자: 문석구(전기공87) 제37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유영록(회계87), 이연기(회계92), 김형철(회계92), 강문수(회계94)



■ 개신상공인회 제9차 정기총회

2003년 개신상공인회 제9차 정기총회가 1월 24일 오후6시에 강신우총동문회장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청풍명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을 이끌 임원진(회장 신민철(토목82), 부회장 김영진(축산83), 사무처장 최낙정(연초85), 감사 박태원(경영83))의 인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승인, 정관 개정, 매년 지급되는 모교 후배들에 대한 개신상공인 장학생 선발 심의가 있었다. (연락처:265-6767, 011-9409-6767)



■ 김용명(약학70)등문 충북도새마을회장

2월 17일 충청북도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용명등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동문은 현재 청원군 미원에서 제일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충북약사회장, 충북대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298-0033)

■ 김주섭(토목70)등문 청주환경운동연합운영위원장

2월 7일 오후6시 청주환경운동연합 제9차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동문은 현재 기화건설(주) 대표이사도 토목공학과 동문회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011-461-3005)

■ 오 슐(경원최23)등문 JC충북지구 회장

2월 22일 JC충북지구대회에서 오 슐 등문이 제32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오동문은 현재 SK텔레콤O.S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연락처:222-5858, 011-461-5858)

○ [산하동문회 행사] ○

□ 교육자 동문회 체육대회

6월 16일 청주농고 대운동장에서 2002년도 교육자동문회(회장 정호선·농학59, 현 청주농고 교장) 체육대회를 12개 팀(농업, 체육, 가정, 영어, 수학, 과학, 국어, 공민, 사회, 윤리, 지리, 교육학)과 강신우총동문회장, 김천호교육감, 신영철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와 1,0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대회결과 테니스 우승-체육 준우승-공민, 배구 우승-과학 준우승-체육, 축구 우승-과학 준우승-체육, 탁구 우승-가정 준우승-수학, 입장상은 수학교육학과가 차지하였다.

□ 법무대학원 지도자과정 동문회 창립총회

6월 24일 저녁7시 리호관광호텔에서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 동문회 창립총회를 강신우 총동문회장, 노병호 법무대학원장, 금영관 법대동문회장, 류길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박익순(5기) 창립준비위원장의 사회로 회칙 통과와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김유규(1기), 수석부회장: 박익순(5기), 상임부회장:권오영(1기) 유철승(8기) 이일순(3기), 부회장:이부묘(3기) 김광철(4기) 송대용(6기) 손오현(7기) 마재열(9기) 노병엽(10기) 신연희(8기) 유옥순(6기) 감사:양재철(7기) 한옥련(7기), 사무국장:정인하(5기)011-317-7137)



□ 개신민우회 체육대회

6월 6일 모교 농대앞 잔디광장에서 개신민우회(회장 김형근(경영78))등문회 체육대회가 30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신방웅 모교 총장이 참석하여 '확장시절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열정을 모교에도 가져 주길 바라며,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개개인의 건강과 발전'을 당부하였다.

□ 축산학과 동문회

10월 19일 축산학과동문회(회장 박동훈) 총회가 1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부터는 청풍명월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 행정학과 동문회

10월 13일 행정학과동문회(회장 김경태) 체육대회가 모교 소운동장에서 동문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락처:261-2196)

□ 국제경영정보(무역)학과 동문회

10월 20일 모교 소운동장에서 무역학과동문회(회장 지용호) 체육대회가 재학생 및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토목공학과 송년회

11월 21일 오후6시 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 김주섭)송년회가 가화한정사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학과30주년 근속인 안상진교수, 20주년인 한상훈, 허 열교수께 근속패, 2002년도체육대회주관기 회장인 이길호(86)등문과 박치근(86)등문에게 공로패, 이종용(86)등문의 4명에게 박사패, 도로 및 공항기술사에 합격한 이병로(79)등문의 11명에 기술사패를 증정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연락처:262-3900)

□ 농업기반공사 동문회 정기총회

3월 8일 오후6시 가경동 백제호텔에서 농업기반공사동문회가 김정환(농공69)회장을 비롯한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선 기념패 전달(김규성(농공69) 농학박사학위 취득, 전세록(토목84) 기술사 취득)이 있었으며, 승진 동문(김상필(토목70) 1급, 이종명(농학78) 2급, 이재선(경영85), 류영 선(행정87), 김준기(경영85), 신홍섭(경영84), 김병수(행정85), 전해홍(농공81), 최홍규(농공80), 유기상(농공79)등문: 이상 3급에 대한 꾀다발 증정이 있었고, 2002년도 결산 보고에 이어 임원 선출이 있었으나 현 임원이 유임되었다. (연락처: 사무국장 김문규: 290-3334, 016-456-5479)

□ 경영대학원 동문회 정기총회

3월 8일 오후 4시 제1회 경영대학원 동문회 정기총회가 경영대학원 세미나실에서 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송희식회장의 인사와 강신우총동문회장과 이현중 경영대학원장의 축사, 회칙 개정 및 제정, 박사학위 취득 동문(송하식, 강봉희)에 대한 축하패 증정,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동문회 사무실 현판식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출발하였다. (연락처:사무국장 김창영:011-462-2521)



취 임

●서병각(농학59)동문 고속철도오송역유치 특위원장

9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인 서병각동문이 호남·경부고속철도청주오송역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018-422-4288)

●김명재(약학60)동문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12월 21일 김명재동문이 2003~4년까지 충청북도내 22개 여성단체를 이끌고 나갈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에 선출되었다. 김동문은 현재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충북지부여성회장, 전국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 : 016-409-4208, 220-5977)

●안영학(연초69)동문 (주)농협충북유동 대표이사

1월 15일 (주)농협충북유통의 신입대표이사로 현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 안영학 부장이 취임하였다. 안동문은 그동안 청주 석교동지점장, 충북지역본부 지도감사부장, 제천시지부장, 농협중앙회인력개발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연락처 : 290-0114)

◆김주섭(토목70)동문 청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취임

2월 7일 청주환경운동연합 제9차 정기총회에서 본회 수석부회장인 김주섭동문이 운영위원장에 선출 취임하였다. (연락처 : 222-2466, 011-461-3005)

●안재경(약학72)동문 3740지구 총재

7월 3일 본회 부회장이인 안재경동문이 충주 후랜드리호텔 대연홀에서 국제로타리 3740지구 '2002-2003년 총재로 취임하였다. (연락처 : 845-3740, 011-481-7763)

●유승원(체육75)동문 청주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주성대학 평생교육처장인 유승원동문이 청주로타리클럽 '2002-2003년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10-8501, 011-9849-4253)

◆강병완(미술77)동문 청주미술협회장

2월 16일 청주미술협회 정기총회에서 강병완동문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강동문은 현재 청주 대성여상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충북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개인전 1회와 한일미술교류전, 충북아트페어 등에 참가하였으며 충북미술대전 초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 011-461-4514)

●이면재(약학80)동문 청주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장

1월 21일 가경동 서부소방서 대강당에서 신청주악국을 경영하는 이면재동문이 청주서부소방서의용소방대장에 취임하였다.

●라미경(정외86)동문 충북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대표

6월 28일 충북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창립총회에서 라미경동문이 대표로 취임하였다. 라동문은 현재 충북여성민우회 정책위원, 모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 234-0217, 016-461-2311)

●김병철(대원석83)동문 동청주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변호사인 김병철동문이 동청주로타리클럽 '2002-2003년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83-2050, 011-469-1194)

●염팔중(경원최15기)동문 청주중앙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경영대학원동문회 사무국장인 염팔중동문이 '2002-2003년 청주중앙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83-0813, 011-469-5952)

●유재광(경원최2기)동문 동서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영운동에서 유인당한약방을 경영하는 유재광동문이 '2002-2003년도 청주동서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54-8223, 011-9425-823)

●정윤숙(경원최2기)동문 한별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충청북도의원이며 우정크리닝 대표인 정윤숙동문이 '2002-2003년 청주한별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6-3989, 011-460-9877)

●한부학(경원최20기)동문 서청주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정일냉동 대표인 한부학동문이 '2002-2003년 서청주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83-2050, 011-9848-4808)

●남철우(경원최17기)동문 청주무심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서경 대표인 남철우동문이 '2002-2003년 청주무심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88-1661, 011-469-1587)

●이봉구(경원최27기)동문 우암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대청주류 대표인 이봉구동문이 청주우암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73-2733, 011-461-9738)

●권순건(경원최22기)동문 외우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주)동양체인 대표인 권순건동문이 '2002-2003년 청주외우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92-9811, 011-462-4811)

●조정희(경원최13기, 법무고2기)동문 새청주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복대체육기점 대표인 조정희동문이 '2002-2003년 새청주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35-0110, 011-469-9874)

●장주식(경원최2기)동문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충청북도의원이며 삼보철강 대표인 장주식동문이 '2002-2003년 진천봉화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533-7441, 011-469-7117)

●신동원(경원최20기)동문 괴산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괴산군새마을지회장인 신동원동문이 '2002-2003년 괴산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832-8004, 011-9848-3513)

●조방형(전농최1기)동문 청원군의회 의장

7월 12일 청원군의회 의원인 조방형의원이 군의회 의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31-1361, 011-469-6767)

●박노성(교원석01)동문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7월 18일 보은교육청 교육장인 박노성동문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선출 취임하였다. (연락처 : 540-5501)

●오병익(교원석93)동문 전국 교지·학교신문연구회장

7월 18일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인 오병익동문이 전국교지·학교신문연구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90-1235, 011-9828-7852)

●권혁광(교원석87)동문 국제라이온스355-F지구 총재

7월 22일 청주관광호텔에서 2002~2003년도 국제라이온스355-F충북지구 총재에 취임하였다.

●오동교(경원최9)동문 청주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주)보성유통 대표이사인 오동교동문이 청주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011-464-5004)

●김상돈(경원최27)동문 청주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주)디지털다우 대표이사인 김상돈동문이 청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36-3334, 019-466-4569)

●이주장(행원고15)동문 상당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정호수지화학 대표인 이주장동문이 상당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11-1854, 011-461-6260)

●반덕현(경원최26)동문 주성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분회 상임이사이며 제일조명 대표인 반덕현동문이 주성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22-5656, 011-461-1144)

●신현욱(경원최5)동문 서원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우림조경과 청주농원대표인 신현욱동문이 서원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11-1144, 011-469-0618)

●류근택(경원최26)동문 청주청명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한국주택은행 기업금융지점장인 류근택동문이 청주청명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9-1283, 011-385-1730)

●김정호(경원최21)동문 청주직지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주)기린건설 대표이사인 김정호동문이 청주직지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22-3791, 011-461-3791)

●노재덕(전농최7)동문 마로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노재덕동문이 보은마로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542-2876, 011-469-6060)

●남기현(행원고9)동문 무심천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삼성출판사 청주지사장인 남기현동문이 무심천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74-2386, 011-482-8963)

●이강우(행원고13)동문 동청주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우진환경개발(주)대표이사인 이강우동문이 동청주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11-1837)

●박덕규(경원최20)동문 괴산남산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대덕식품 대표인 박덕규동문이 괴산남산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832-3655)

●채동중(전농최2)동문 청천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청천관광농원 대표인 채동중동문이 청천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832-4377, 019-412-4377)

●장창용(전농 최2)동문 황간월유라이온스클럽회장

7월 8일 장창용동문이 황간월유라이온스클럽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742-5074)

●김해숙(회계84)동문 청주 첫 여성 소방파출소장

9월 16일 청주서부소방서 소방위 김해숙동문이 사적소방파출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동문은 88년 청주소방서 소방과 장비계 근무를 시작으로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계, 증평소방서, 청주소방서 등 도내 소방서를 두루 거치면서 예방, 예산 및 회계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 받아왔으며, 지난 9월 소방위 승진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도내에서는 두 번째 청주에서는 첫 여성파출소장 및 소방간부가 됐다. (연락처:263-0119, 011-9812-1582)

●김진호(행원고기)동문 한나라당 상당지구당위원장

9월 20일 청주약품대표이며 전도의회의장인 김진호동문이 한나라당상당지구당위원장을 맡았다. (연락처 : 256-1001)

●박장순(행원고7기)동문 충북탁구협회장

11월 3일 일신복장 대표이며 전청주유협동조합장인 박장순동문이 충북탁구협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11-2554, 011-469-1156)

●이광성(경원최27)동문 충북벤처클럽회장

11월 20일 충북중소기업청회의실에서 충북지역 벤처기업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S.H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인 이광성동문이 회장에 선임되었다. (연락처 : 269-4401, 011-250-7463)

●이범우(경영84)동문 국민통합21흥덕지구당위원장 취임

12월 8일 오후4시 청주관광호텔에서 국민통합21 청주흥덕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이범우동문이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동문은 모교 총학생회장출신으로 현재 '젊은한국미래포럼' 회장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 : 016-479-1170)

●유명수(경원최6)동문 청주키비탄클럽회장 취임

12월 6일 일산프라자웨딩홀에서 열린 청주키비탄클럽총회에서 새한조경(주) 대표인 유명수동문이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24-0144, 011-469-1002)

●김정우(경원최8)동문 충북양궁협회장

1월 17일 (주)선진전자기술 대표이사인 김정우동문이 충북양궁협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214-6458)

●권순건(경원최22)동문 충북승마협회장

1월 18일 가경동 뉴베라호텔에서 (주)청주주류 대표인 권순건동문이 충북승마협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92-9811, 011-462-4811)

부 임

- 정명채(농학66)동문 노무현대통령인수위원회 임명
12월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인 정명채 동문이 2003년 2월 25일 취임하는 노무현대통령인수위원회에 임명되었다. (연락처 : 02-419-5317, 3299-4341)
- 조영호(임학65)동문 3군사령부부사령관 (연락처 : 031)331-6100)
- 김상인(화학79)동문 천안 녹십자공장장
6월 10일 본회 이사인 김상인동문이 프 레지니우스녹십자 공장장으로 부임하였다. (연락처 : 561-2620, 011-452-2227)
- 우병수(행정석97)동문 문화관광국장
7월 22일 공무원 교육원장이었던 우병수 동문이 충청북도 문화관광국장에 부임하였다. (연락처 : 220-4100)
- 김상필(토목70)동문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장
7월 1일 동문회장학재단이사인 김상필 동문이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장으로 부 임하였다. (연락처 : 543-1118, 011-343-8968)
- 손길균(경영77)동문 하나은행울랑지점장
11월 18일 서울은행 청주지점부지점장 이었던 손길균동문이 하나은행 울랑지점 장으로 승진 부임하였다. (연락처 : 212-7231)
- 박지환(회계81)동문 하나은행청주중앙지점장
10월 1일 청주중앙지점에 박지환동문이 승진 부임하였다. (연락처 : 222-2111, 011-235-9411)

수 상

- 연재흠(농화69)동문 석탑산업훈장
7월 1일 제35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동부화학(주) 구미공장장인 연재흠동문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연락처 : 054-461-5100)
- 김시중(건축79), 김창현(법무석00), 최학순(산업석01)동문 국무총리상
6월 29일 상반기 충청북도 모범공무원 표창에서 도청 건축문화과의 김시중동문 과 감사과의 김창현 동문, 건설종합본부의 최학순동문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한설희 교수 '복지부장관상'
2월 14일 모교 충북대병원 신경과 한설 희 교수가 무료 자원봉사 공로를 인정받 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 교수 는 지난 5년간 청원군 현도면 은혜의 집을 방문해 요양치료중인 치매노인들을 대 상으로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는 등 남모르 게 봉사활동을 해왔다. (연락처:269-6372)
- 이철희(회계80)동문 공무원PC경연대회 1위
7월 20일 제3회충청북도 공무원PC경연 대회에서 청주시청 문화관광과에 근무하 는 이철희동문이 6급직에서 1위를 하였다. (연락처 : 220-6921, 011-482-0271)
- 백중현(토목79)동문 공무원PC경연대회 3위
7월 20일 제3회 충청북도 공무원PC경연 대회에서 충북도청 지역개발과에 근무하 는 백중현동문이 7급직에서 3위에 입상하 였다. (연락처 : 220-4451)
- 김문규(재료79)동문 청주시생활체육보링 대회1위

- 9월 15일 청주 금강보링장에서 개최한 제7회청주시생활체육보링대회에서 농업 기반공사 충북지부 공사부에 근무하는 김 문규동문이 6개입 AG209점으로 1위를 차 지하였으며,10월20일 보은에서 열린 충청 북도생활체육보링대회에 청주시 대표로 선발되었다. (연락처 : 016-456-5470)
- 심인택(임학64)동문 대통령 표창
10월 25일 산림청 '동계산불대책회의' 에서 충주시청 산림복지과장인 심인택 동 문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심동문은 충 주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산사랑 진화대' 를 자체 조직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큰 성과를 거두는 등 산불예방에 많은 업 적을 남겼으며, 산사랑 산림공무원으로 정 평이 나왔다. (연락처 : 850-5331, 018-414-0310)
- 정승근(농학62)동문 충청북도민대상
12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 된 제7회 충청북도 도민대상에서 모교 식 물자원학과 교수인 정승근동문이 학술부 문 도민대상을 수상하였다. (연락처 : 261-2517)
- 임윤수(농공63)동문 녹조근정훈장
1월 15일 충청북도 도로과장인 임윤수 동문이 재해대책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로 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임동문은 본 회 부회장이며 산업대학원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 : 220-4510, 011-459-1999)

합 격

- 은민호(토목87)동문 토목시공기술사
12월 9일 진천군 백곡면사무소에 근무 하는 은민호동문이 충북도내 시·군 공무 원들 가운데 토목시공기술사 1호로 합격 하였다. (연락처 : 539-3605, 011-461-9498)
- 이항열(환경공90),박선일(법94)동문사법시험 제44회 사법시험에 이항열,박선일동문 이 합격하였다. (연락처 : 이항열011-9093-2751, 박선일019-307-4175)
- 문석규(전기87)동문 지방행정고시 제8회지방행정고시에 문석규동문이 최 종 합격하였다. (연락처 : 016-475-7348)
- 유영록(회계87) 이영기(회계92) 김형철(회 계92) 강문수(회계94)동문 제37회공인회 계사 합격
(연락처 : 유영록 016-9545-8689, 이영기 016-349-6336, 김형철 019-253-0763,

- 강문수 011-9814-0913)
- 신수철(재료90)동문 제39회변리사시험 합격 (연락처 : 031)322-2255, 016-777-0423)
- 박진우(전기88)동문 제38회기술고시 합격 (연락처 : 016-9566-1814)
- 제8회법무사합격 : 이은규(법학85), 김한민(법학89), 곽미지(법학90)

출 간

- ◇도종환(국어72)동문 '바다유리' 출간
충북민예총 회장이며 덕산중학교 교사 인 도종환동문이 첫 장편동화 '바다유리' (현대문학북스)를 발표했다. 도동문은 이 책은 몇 년 전 학생들과 바다에 갔다가 발견한 박하색 바다유리를 보고 착상하였으 며, "아름을 딛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반짝 이며 놓여있는 바다유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며 "사랑에 눈뜨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세상에 대해 절망하거나 아파 하는 젊은이에게 이 책을 전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연락처 : 011-230-0354)
- ◇이철희(회계80)동문 '아이들과 함께하는 청주문화유산답사' 출간
7월 10일 상당구청 대강당에서 청주시 청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이철희동문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청주문화유산답사' (도서출판 직지)를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동문은 그동안 인터넷 웹 사이트 '청주 문화사랑방(www.munhwa21c.com)'을 운영하면서 올렸던 글과 각종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 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연락처 : 220-6921)
- ◆정동학(경영81)동문 등단
청주 분평감리교회 담임목사인 정동학 동문이 월간 '문예사조' 1월호에 수필 '도 토리와 다림뿔'로 신인상에 당선돼 등 단하였다. (연락처 : 295-0061)
- ◆김동범(행정77)동문 '감성세일즈필드북' 출간
1월 22일 전문 컨설턴트이며, 감성마케팅 기획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로 활동하 고 있으며, 현재 보험사랑컨설팅 대표로 있 는 김동범동문이「감성 세일즈 필드북」을 출 간하였다. 김동문의 저서로는「21C생활보장 기회를 잡아라」, 「보험은 제테크 그 이상의 것이다」, 「집포경영 솔루션」, 「화법을 일면 성공이 보인다」, 「인품이 풀보이는 편지, 성 공이 묻어나는 DM」, 「생활보험용어 실용백 과사전」 등이 있다. (연락처 : 02-6351-0628, 019-244-0628)

개 업

- ◇김요식(화공78)동문 '명가의 집'
6월 21일 흥덕구 분평동에 충북력비협 회장인 김요식동문이 럭비협회 발전과 우 수선수 발굴, 장학금지급, 훈련비지원을 위한 '명가의 집'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87-9292)
- ◇이홍모(역사77)동문 원뜰가든휴양소 개업
7월 6일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소재 원평 유원지내에 이홍모동문이 원뜰가든휴양 소를 개업하였다. (연락처 : 544-0092, 0005, 019-411-8755)
- ◇황동민(안전87)동문 (주)이름 개업
9월 14일 본회 부회장인 황동민 동문이 상당구 내덕동 로얄보링장옆에 그동안 (주)젊은세상과 OK가스설비 사업의 영역 을 확대하고 회사의 이미지 통합을 위해 社名을 (주)이름과 이름가스엔지니어링으 로 변경하여 개업하였다. (연락처 : 223-72157, 011-465-1538)
- ◇윤의상(재료77)동문 한글국제특허법률 사무소 이전
10월 12일 본회 부회장이며 변리사인 윤 의상동문이 한글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가평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으로 이 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33-8180, 011-492-8784)
- ◇김진구(국문90)동문 디지털시뮬리티 개업
10월 26일 본회 상임이사인 김진구동문 이 첨단도난정보시스템설비 회사인 디지 털시뮬리티 사업장을 사직주공아파트입 구에 개업하였다. (연락처 : 268-2112, 016-448-9153)
- ◇김기동(생물83)동문 대우자동차 남청주 판매(주) 개업
11월 2일 본회 부회장인 김기동동문이 산남동 금성자동차학원앞에 대우자동차 남청주판매(주)를 개업하였다. (연락처 : 291-8002, 011-461-7007)
- ◇팽기홍(법학80),김경덕(생물81)동문 드림 사회·과학교실
12월 2일 중등학생을 위한 사회·과학 전문학원인 '드림사회·과학교실'을 개업 하였다. (연락처 : 236-8086, 011-9840-5341)
- ◇곽양규(정의82)동문 '김밥천국'개업
11월 2일 상당구 서운동 외환은행옆 에 곽양규동문이 '김밥천국'을 개업하였 다. (연락처 : 252-8811, 017-420-5692)

[동문회비 납부안내]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을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로입금
동문회비에 동봉된 지도를 이용합니다.
(용지에 자세한 인적사항을 적어 보내 주시면 동문 찾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통장입금
이래 계좌로 입금하시며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 동문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4-12-080690 (예금주 : 강신우)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우리대학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200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772명)에 2천 390명이 응시하여,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인기학과 경쟁률이 높았으나 그중 최고는 국어교육과로 고교성적우수자 2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하여 18.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12월에 실시한 정시모집에서는 3,373명 모집에 8,467명이 응시하여 2.51대 1(2002학년도 2.11: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의예과가 13.5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 평생 모은 재산 후학 양성 위해 기탁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입학과에 재직중인 김홍은 교수(61세)가 평생 모은 재산(부동산)을 후학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10월 23일 본교 발전기금재단에 기탁했다. 김교수는 1965년 2월 17일 본교 입학과에 농학사 학위를 1971년 8월 31일 본교 대학원 입학과에서 농학석사 학위를 1987년 5월 23일 일본 경도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72년 9월 1일 본교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30여년간을 오로지 후학 양성의 외길을 걸어온 학자로서 귀감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학내 및 연습림(월악산 국립공원)의 수목 관리 및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우리 대학을 전국 제일의 경관을 자랑하는 캠퍼스로 가꾸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송계 초등학교 등산분교 설립 및 장학금 마련과 한국방송대학 충북지방장학재단의 기를을 마련하였고, 교도소 특강, 불우 이웃돕기, 불우학생돕기, 학과 학생 장학사업, 충북 임업인상 제정(현재 입학과 교수들이 각출하여 기금 1,100만원이 적립됨), 흥은문학상 제정 등 지역봉사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 이번에 기탁하는 부동산은 현 시가로 2억원 상당에 해당되며,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

◎ 기초학문육성지원 연구비 총 40억원 지원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학교에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약40억원 가량의 기초학문지원금을 분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작년 8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으로 기초학문분야에 선정된 연구과제에 지원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각각 1년에서 3년동안 분할 지급받게 되는데 이미 1차분 15억원이 배정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지원되는 연구비는 기초학문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식한국인의 건설을 위한 학술인프라 구축, 기초학문연구력의 획기적인 증대를 주요내용



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기초학문육성지원 연구비는 그동안 취약했던 기초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 인력양성에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 충북대-청주시 전국 최초 관·학 협동프로그램 추진

충북대학교와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학 협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충북대학교의 우수 인력과 첨단 장비가 지원되며 청주시 직원이 충북대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충북대학교 학생들은 시에서 현장교육을 받는 등 양 기관간 교류가 활성화 된다. 신방웅 총장과 한대수 시장은 지난해 8월 1일 청주시에서 관·학 협동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충북대학교가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아래 청주시 Habitat 운동, Sports Complex 공동운영방안,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유치를 위한 이벤트 공동 개최 등 15개항의 협동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청주시 및 대학부지에 지역민과 공직자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스포츠 관련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

◎ 학내 산책로·조깅코스 조성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생들이 10억이 넘는 공사비를 부담하여 우리학교 울타리를 따라 산책로를 흙길로 만들 예정이다. 일부 기존의 산책로와 연계해 만들어질 새 산책로에는 평행봉 등 다양한 운동기구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우리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들 비록해 청주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화를 통한 국제화를 위해 부담없이 학교를 찾아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대학은 면적이 30만평에 이르고, 둘레가 4km 가 넘으며 나무가 많고 큰 경사가 없어 산책길로는 안성맞춤으로 평가되고 있다. ●●

◎ 개신가족 음악회

충북대 가족들에게 클래식 음악과 성가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충북대 음악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충북대학교 기독교교수회가 3년 전부터 주관해 오던 개신가족음악회를 지난 11월 25일 개신 문화관에서 성대하게 치루었다. 대

학 주관으로 개신문화관을 음악 및 예술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충북대 가족을 위한 개신가족음악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정례화 되어 기획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서울, 대구, 청주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 중 테너 2인(김태훈, 황태울)과 소프라노 2인(김수경, 노미라)등이 출연하여 독창뿐만 아니라 이중창, 4중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2002년을 보내고 2003년을 준비하는 충북대학교 가족들이 새로운 한해를 음악의 선율과 함께 구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간이었다. ●●

◎ 외국인 학생 제 1회 한국어 글쓰기·말하기 대회

국제교육원(원장 하성룡)에서는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본부 3층 시청각실에서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제 1회 한국어 글쓰기·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초급(주제: 나의 가족, 나의 실수, 우리 선생님, 내가 슈퍼맨이라면)과 중급(주제: 나의 이상형, 내가 본 한국인, 이상한 한국어, 내가 느낀 한국 생활)부분으로 나누어 백일장과 의견발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외국 학생들에게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열린 이 행사에서 “백일장” 부분에서는 대상에 반 문, 우수상에 장위건, 석현보, 장려상에 양 휘, 장 초, 사육상, 강진리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말하기” 부분에서는 대상에 악명려, 우수상에 공 양, 방서봉 등이 수상하였다. ●●

◎ 2002 개신축전 “다시 외치는 대~한~민~국”

2002. 개신축전이 지난해 9월 2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월 26일까지 “다시 외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신학생회관 주변과 소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개신축전동안 전·야제 영화상영, 락 페스티벌 및 개신가요제가 열렸고, 상설행사와 함께 각 단과대학별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개신축전을 준비한 ‘대한민국’총학생회장 박정삼군은 “개교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반세기로 접어들어 이 시점에서 처음 맞이하는 축전이기에 그 준비과정에서 큰 부담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내’가 아닌 ‘우리’의 모습을 찾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우리’가 다니는 학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나와 학교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 여학생기숙사 계영원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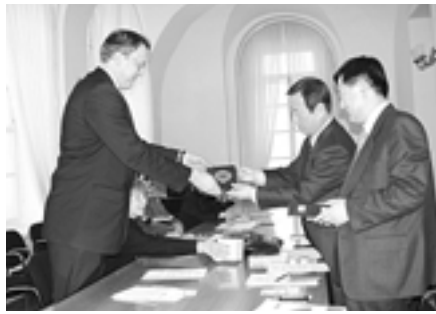
여학생기숙사 계영원이 완공되어 2월 27일 15:00에 개관식을 가졌다. 4년여의 공사기간(1998. 7. 8 ~ 2002. 12. 5)과 5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 완공된 신축기숙사는 지하 2층·지상 11층의 건물로 세탁실·다리미실·휴게실·도서실 등의 공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파트형으로 설계되어 8명의 학생이 거실·화장실 겸 세면실·베란다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실당 2인 1실의 방이 4개 있다. 지상 1층에서 10층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지상 11층은 GUEST HOUSE로 운영된다. 신축기숙사 수용인원은 406명으로 우리대학 학생기숙사 전체수용인원은 1,339명으로 확정되었다. ●●



◎ 유럽대학과 학술교류협정체결

신방웅 총장은 2003년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썬트페테르부르크대학, 스페인 카스티야 라 망차대학을 방문하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하였다. 유럽대학과 학술교류협정체결은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UNESCO 보고서에 세계 6위로 기록된 썬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 학술교류협력이 기반이 마련되어 언어연수, 교수 및 학생교환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기숙사·생활비 등의 지원 여부에 따라 그 실시 시기가 조정될 것이다. 카스티야 라 망차주(州)에 4개의 지역캠퍼스를 보유한 스페인의 명문대학 중의 하나인 카스티야 라 망차대학과는 여러 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학술교류협정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역사, 문화, 지역, 사회, 경제 등 인문사회 분야는 물론 환경분야를 포함한 이공계 분야의 공동연구와 교수 및 대학원생의 상호방문교류에 대한 협력이 가능해졌다. 또한 학술교류협정체결은 러시아, 스페인의 대학으로 학술교류협력기반이 확대되었고, 양 대학간 학생교류와 공동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학술교류 실무협의를 국제교

육원장인 도시공학과 하성룡 교수가 담당하였다. ●●



◎ 제5차 충북대학교 종합발전 계획 공개토론회

제5차 충북대학교 종합발전계획 연구위원회는 1월 28일 오후 3시 개신문화관에서 교수·교직원·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개토론회는 우리대학 제5차 종합발전계획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방향과 학내외의 현안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정영수 교수(교육학과)는 “교육정책의 변화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정책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박외숙 처장(기획연구처)은 “충북대학교의 현안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교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및 신방응 총장의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와 방침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이학수 교



수(교수회장은 “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교수회의 의견”을 주제로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연구·봉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수회 법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승택 교수(충북대학교 병원장)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충북대학교 병원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충북대학교 병원의 위상정립과 긍정적인 이미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교수 및 교직원 55명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연구팀장 회의, 공개토론회, 분야별 연구포럼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본교 제5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오는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우리 대학은 2월 18일 러시아 이르쿠츠크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이르쿠츠크대학 총장 Alexander SMIRNOV, 재정담당부총장 Vladimir GIEBELTS, 국제협력부

총장 Serguei CHOUNINE 등의 방문단이 본교를 방문하여 11시 40분 총장 접견실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대학에서는 현재 유럽지역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체결을 위하여 국외출장 중인 신방응 총장을 대신하여 박외숙 기획연구처장이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협정체결은 러시아지역의 대학과 학술교류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르쿠츠크대학은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9,000명의 학생과 620명의 교수로 구성된 러시아 5대 명문대학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깊고, 청정하며, 답수량(세계 민물의 20%, 세계 식수의 80%)이 가장 많은 천혜의 호수인 바이칼 호수가 대학에서 약 70km 거리에 있어 생물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의 몇몇 대학과 이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 한국-시베리아 센터를 설립하여 한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의 과학, 기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 학생교환 등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대학

에서도 이번 학술교류협정체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학생교환프로그램 및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2002년도 간접연구경비 수탁 우수교수 연구장려금 지급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는 2003년 2월 28일(금) 15:00 본부 9층 청풍명월에서 2002년도 연구비 수혜자 중 일정액이상의 간접연구경비를 납부하여 연구활성화 및 대학 재정에 기여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장려증서 및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대상은 2002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 중 간접연구경비(Over head Cost)를 징수한 모든 연구과제의 본부 납부분을 기준으로 상위 1위에서부터 60위까지를 선발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약대 문동철교수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지급액별 인원은 3백만원이 4명, 2백만원이 4명, 120만원이 10명, 80만원이 11명, 60만원이 15명, 50만원이 15명이다. ●●

“도서관은 대학의 상징이요, 심장입니다.” “도서관이 발전해야 대학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이 있어야 도서관이 발전합니다.”

(옆 “표”가 충북대학교 도서관의 현실입니다.)



■ 도서관 기금(무통장 입금):
농협 304-01-236533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 도서)

■ 발전후원금 기탁서를 작성할때는 “기타”란에 “도서관기금”으로 명시바랍니다. 그리고 후원금은 1구좌 1만원 이상이며, 후원금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해당도서관에 후원자의 성함과 도서기증 내용을 각인해 드립니다.



■ 연락처: 전화번호: (043) 261-3273

■ 국립대학교 도서관 장서 비교표 (2001. 12)

대학교명	장서수(권)
서울대학교	2,191,591
경북대학교	1,682,860
부산대학교	1,130,895
충남대학교	1,024,659
전북대학교	804,390
전남대학교	759,790
강원대학교	677,998
경상대학교	664,048
제주대학교	576,876
충북대학교	535,764

자료출처: 국립대학 도서관보 제20집(200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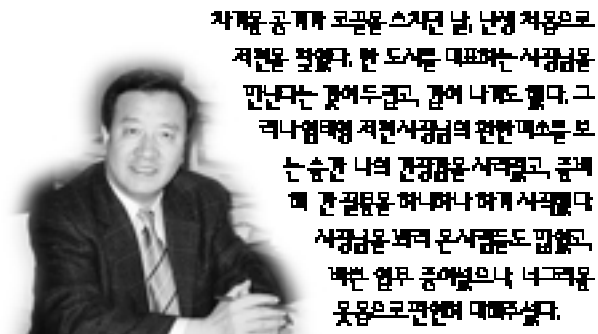
Interview 인터뷰



엄태영 제천시장 ·곽정수 교장

엄태영 제천시 시장님과과의 인터뷰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살자”
-따스한 미소 속에 담긴 열정.



1. 시장으로 당선된 후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요?
제천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커다란 사명감을 느낍니다. 시간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행동에도 조심을 하게 되지만, 저에게 주어진 임무들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2. 항상 총북 최연소 시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시는데요.
물론 부담감은 느끼나 그것을 자랑스라이 여겨,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 시장으로서 정치문제, 시민들의 여러가지 민원 등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마다 갖는 각오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선거 때 내세운 공약 내용을 추진하다보면 갖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좋은 것과 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시장으로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의 보람입니다.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을 즐겨야 진정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풍명월의 본고장인 제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접함에 있어 밝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대학시절 화학 공학을 공부하셨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특별한 동기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화학 공학이 기초과학이고, 꿈꿨지만 세심함이 필요한 학문이라 쉽지만은 않았습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 나에게는 조금 맞지 않았죠. 그리하여 졸업 후에 세일즈를 하게 되었고 지방 자치 시대의 출현으로 주변의 추천과 고향을 위해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연소 시의원으로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 모르겠네요.

5. 대학 시절, 함께 공부하던 동기, 선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시나요?
대학에 다니면서 좋은 만남이 많이 있었고, 정말로 참된 친구, 멋진 선배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나면서 진실한 친구, 선배님 후배들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한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되기까지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 계십니까?
대학시절 담당 교수님이셨던 남기대 화학공학과 교수님이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 사랑이 남달랐고,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각각 특성별로 진로를 함께 고민해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친구들, 선배들도 그 교수님을 존경하십니다.

7. 정치인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치를 할 때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멀리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태도로 사물을 접하게 되면, 더 큰 꿈을 이룰 수가 없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적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꿋꿋이 펼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치인의 소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어느새 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8. 인생의 지침이나 좌우명이 있다면요.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살자”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현재에 충실히 일하는 것이죠. 또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줄여나가는 것이 커다란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9.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시장님 생애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나의 작은 바람으로는, 내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언제나 소신껏 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0. 어떤 사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치는 권력 행사의 수단이고, 자칫하면 권력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권력 투쟁의 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는 권력 투쟁의 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어떤 사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치는 권력 행사의 수단이고, 자칫하면 권력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권력 투쟁의 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정수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후학, 후배 양성에 온 힘을 받치고 싶어”



농공학과 신학원 동문인 곽정수 교장은 16년 간의 교사생활을 거쳐, 단재교육연구소 학생 종합 아카데미 등의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오랜 근무를 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1990년 3월부터는 교감 연구소로서 활동하였고, 2000년 9월 오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고, 현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기까지 약 30년간 교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여러 한 교원으로서의 삶 등 그의 교육철학 및 근황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1. 비 사범계열인 농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교직에 몸을 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토목기사로서 설계 관련 현장에서 약 8개월 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계계는 말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한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교육을 통해 인간을 다루는 교사의 일이 더욱 가치 있다고 느껴져 중등교원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원생활을 시작한 것이 벌써 약 30 여 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 오창 고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을 때 “10년 후의 내 모습은?” 이라고 새겨진 글귀가 참 인상적이더군요. 교사로서 나름의 교직 관(敎職觀)나 좌우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재의 각박한 입시 제도 속에서 자칫 지금 당장의 대학 입시만을 생각하기 쉬운 우리 학생들이 현재 뿐 만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며 꿈을 키우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귀입니다. 저는 교사도 의사나 판검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데 있어 바른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친밀한 접근성과 편안한 인격을 갖춘 교사이말로 진정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직 관(聖職觀)도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대사의 선시(禪詩) 중,

踏雪野中去 해야
不須胡亂行 이라
今日我行跡은
遂作後人程 이라

3. 4행시가 있습니다. 즉,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리라.” 라는 말이지요. 저는 늘 이 시구를 되새기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특별히 현 총동문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매때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등의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만, 참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후배들의 노고에는 깊이 동감하고 동참하는 바입니다. 보다 나은 교육개혁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5. 특별히 현 총동문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직 우리 동문회의 구심점이 약하여 응집력이 다소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동문들의 참여 의식 저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단단한 구심점을 만들고 동문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모교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문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현 충북대학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후배들이 변화와 개혁에 빨리 적응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해안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청북도를 우리 충북대 출신들이 변화, 발전시켜 일류 도를 만드는데 주체가 되고, 중임을 맡기를 바랍니다. 선진 복지 충북을 건설하는데 우리 동문들이 원동력이 되고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충북대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7.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다면?
30여년 간의 긴 시간을 교직에 몸을 담아 왔듯 남은 여생도 국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사회의 중견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후학, 후배 양성에 온 힘을 받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모교인 충북대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나마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교토(京都)의 어느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임 병 덕
역사78학번
(충북대 사학과 교수)

현재 일본의 수도는 도쿄로 일본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에서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적인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본인의 영원한 마음의 수도는 세계 금융 센터의 하나인 도쿄가 아니라 교토라 할 수 있다. 교토는 시 전체가 유적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천년고도로 1년에 3,500 만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도시이다. 교토를 보지 않고 일본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는 교토를 보면 일본의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2002년 1월 23일 오전 9시 45분에 필자는 794년 간무(桓武) 덴노(天皇)가 수도를 헤이안쿄(平安市: 지금의 교토)로 옮긴 후 1869년 메이지 덴노가 도쿄를 수도로 하기까지 일본의 천년수도였던 교토를 방문하기 위해 아시아나 OZ112에 탑승하였다. 필자가 1월 23일 일본의 유서 깊은 교토를 방문하게 된 것은 교토의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의 초빙으로 학술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학술발표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인문과학연구소의 배려로 1주일간 머무를 숙소와 여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토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교토로 향하면서 끊임없이 내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생각은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과거의 관계 및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인천공항의 면세점에는 소위 명품을 사기 위해 북적거리는 일본인들이 북적거렸다. 세계 명품의 최대고객은 일본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 한다. 자기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거의 유사하다고 한다. 오사카를 경유하여 오후 4시에 교토대학에서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는 ‘清風會館’에 도착하였다. ‘청풍회관’에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교수인 도미야 이따루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의 중국사연구 주임인 도미야 이따루씨는 簡牘學과 中國古代法制史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저녁에는 도미야 이따루씨와 함께 걸어서 교토의 명소인 기원을 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기원에서 식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기원은 음식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신용이

있는 단골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기원의 어느 작은 곳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도미야 이따루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곳의 작은 방 끝에는 뽕장어 모양의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에는 한 겨울인데도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리고 보면 교토의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조그만 정원이라도 있으면 꽃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꾼 모습을 볼 수 있었다.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東方學部는 세계중국사연구를 선도해온 세계중국사연구의 센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중국사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도 교토대학의 동양사학과인데 흔히 이곳에서 배출된 연구자들은 독특한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흔히 교토학파라 부르고 있다. 경

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동방학부의 도서관에 소장된 漢籍은 1920년 일본의 대륙에 대한 침략이 한창일 때 중국의 천진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를 몽땅 옮긴 것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방대한 漢籍을 살펴보고 동방학부 별관으로 발을 옮겼다. 동방학부 별관에는 꼼꼼하게 정돈된 금석각본이 쌓여있었다. 금석각본 뿐만 아니라 이틀테면 돈황촬영사진자료 등의 미술사자료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금석각본은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금석각본은 도미야 이따루씨가 팀장이 된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팀에 의해 꼼꼼히 정리되어 발간되고 있다. 마침 중국 武漢大學의 牟發松 교수가 객원교수로 와 있었는데 점심을 같이하면서 인문과학연구소의 수많은 한적자료와 각종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牟發松씨는 한편으로 감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분개하는 것 같았다.

25일 약간은 부담스러우면서도 자신이 있었던 학술발표를 마치고 흥기분한 마음으로 29일까지 교토와 오사카의 여러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1994년 유네스코는 교토의 東寺 등을 비롯하여 무려 17 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였다. 현대도시로 명맥을 유지하는 곳에 세계문화유산이 무려 17개에 달하는 교토는 그야말로 일본인의 표현대로 기적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정상 徳川家康의 居所

였던 二條城, 足利義政의 산장였던 銀閣寺, 南禪寺, 요시다신사, 平安新宮을 둘러보고 별도로 일정을 정해 오사카의 箕面山 기면공원 등을 살펴보았다. 곳곳에 펼쳐진 울창한 숲,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거리, 잘 다듬어진 정원 등은 참으로 보기가 좋았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7일에 은각사를 답사하다 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를 택시 안에 놓고 내리고서였다. 난감하였다. 혹시나 하고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데 서너 시간 지나자 연락이 왔다. 택시기사가 찾아와 카메라를 전해주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다. 덧붙여 가시는 곳까지 모셔주겠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의 타고난 친절이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일본은 없다” 혹은 “일본은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일본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한다.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분노하지만 우리의 역사교과서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초등학교서부터 우리의 역사교과서는 민족주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배타적인 민족주의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면 과언이 아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로 말하면 중국만큼 우리를 착취하고 또 완벽하게 지배한 나라도

없다. 또 지구상에 중국만큼 소수민족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실현한 나라도 없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20만명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일제의 남경대학살에 대해서는 중국인과 함께 분노하고 동조하지만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티베트인 80만명 이상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황사바람은 불만 되면 해마다 강해진다. 오늘날 한국은 달리아라마 초청조차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실정에 있다. 오늘날 중국은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기회와 땅이지만 지나친 황사바람이 우리를 질식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와 붙어있고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는 강대국과 노쇠해지는 老帝國, 과연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어느 곳을 가나 볼 수 있는 신사와 사찰, 일본만큼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한때 일본의 덴노는 맥아더 앞에서 신이 아닌 인간임을 어쩔 수 없이 고백했지만 신화시대부터 신으로 존재했던 덴노가 하루아침에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분실한 카메라가 마치 자신의 잘못된인양 사과하는 일본의 택시기사처럼 친절하고 질서 있고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도대체 한국의 식민지지배,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인정하는 것에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만난 본 일본인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잘 지키고 친절하다. 신세진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도 확실하다. 필자의 경험상 개인

적으로 중국인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일본인들의 약속은 그대로 믿어도 좋은 듯하다. 왜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이것이 교토의 수많은 신사와 사찰을 보면서 덴노가 신인 그들의 운명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교토의 어느 길목에 위치한 관세음보살상은 보면서 일본만큼 신이 많은 나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토록 웅성한 교회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필자는 신의 나라 일본만큼 신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알다시피 오늘날 서유럽의 문명의 기초에는 기독교가 존재한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야하는데 현실의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여기에서 인간은 사후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패전 후 독일이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거듭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잣대로 보면 일본은 회개와 반성과는 거리가 먼 언행을 일삼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제 일본이 과거의 중일전쟁, 한국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이 덴노가 신인 나라, 다시 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역사는 덴노로부터 시작한다. 역사만이 아니라 종교도 덴노로부터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그 어떤 종교도 덴노 이상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불교는 덴노를 기초로 하는 신도 속에 포섭되었지만 기독교는 교리상 덴노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독교가 일본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반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덴노가 역사와 종교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역사의 왜곡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일본과는 크게 다르지만 한국과 중국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공통된 점도 존재한다.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중·일의 폐쇄성, 민족주의의 강조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문명, 신의 심판이 없는 문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역사에서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잘 알고 있지만 만약 전후에 맥아더가 덴노를 전범으로 재판하여 사형에 처해 덴노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대사가 일본에서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반성과 회개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우리는 교과서 왜곡문제나 독도문제, 식민지지배 등으로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무조건 나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민족의식은 후진국의 콤플렉스에 다름 아니다. 한국도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 민족만을 강조하는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더 넓은 시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그리고 일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동문단상〉 자장면 한 그릇에 담긴 세상 이야기



정 문 섭

· 국제경영학과 1회 졸업 (79학번)
· 중부매일논설위원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필자는 청원군이 시행하고 있는 청원교양강좌를 들을 기회가 있어 청원군민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날 초빙된 강사는 고대 앞 중국집에서 번개배달로 이름을 날린 뒤 철가방 배달원에서 스타강사로 신분이 수직 상승되며 일약 스타덤에 올라선 조태훈씨로 [자장면 한 그릇에 담긴 세상이야기]가 강의 제목으로 선정돼 있었다.

69년생, 초등학교 2년 중퇴 학력이 전부인 그가 97년 고려대 명예강사를 시작으로, 98년 청와대 선정 신지식인, 국내 명문대 및 관공서 출강, 대그룹 초청강사로 나선 데 이어 번개의식경영컨설팅연구소장과, (주)코원시스 프로배달 서비스 아카데미 소장, 그리고 저서로 [나의 선택, 나의 길]이란 책까지 출간할 만큼 유명인사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점은 2시간 여에 걸친 그의 강의를 들으며 곧바로 풀렸다. “솔직히 저는 누구 앞에서 강의를

할 만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저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저의 살아있는 지식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다.

그는 자장면 배달도 즐겁고 보람되게, 무엇보다 열심히 하면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끊임없는 연구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 거래를 트는 가정집 배달을 가게 되면 아이를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배달주문이 오면 상대방 아이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고객을 감동시켰고, 여관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비닐봉지를 챙겨가서 방 주위의 쓰레기도 치우고 정리하며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바쁜 인턴들이 휴게실에서 음식을 시킨 뒤에도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면이 굳기 전에 먹기 좋도록 아예 자장면을 비벼놓는 친절도 베풀었다.

고객들에게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폼나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까지 맨채 배달 길에 나서자 손님들

의 대하는 말투가 달라짐을 느꼈고, 때문에 그는 아침 일찍 옷을 다려 입기 위해 더욱 부지런을 떨어야 했다.

“마켓팅은 쉽게 말해서 많이 팔아 먹자는 뜻 아닙니까?”

그의 설명대로 많이 팔아먹기 위해 그가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시도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은 고객만족과 고객 감동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전주곡들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손님을 상대하며 체험적으로 터득한 그의 이같은 영업전략은 당시 설성반점 단골고객이었던 고려대 경영학과 박종원 교수가 마켓팅 이론을 통해 학문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주었다.

이후 박교수는 고객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던 그만의 감동전략을 학생들에게 강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안골의 번개는 이를 수락하는 순간 철가방에서 대학강사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지방대 육성 등 지방관련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뒤집어 해석하면 결국 지금까지는 지방이 수도권과 아주 다른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서울약대, 서울과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서울상대라고 부른 것이나, 고려대 조치원 분교를 조려대로, 연세대 원주 분교를 원세대로 불렀던 것도 지방대의 실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때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조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노력만 하면 자장면 배달원을 하다가도 대학강사로 신분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졸업을 앞둔 지방대생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다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캠퍼스 여기저기서 들린다.

충북대를 졸업하는 동문 예정자들은 이처럼 한뼘한뼘 정리를 하기에 앞서 철가방이 던져준 다음의 질문에 지문자답해 보라.

그리고 살아있는 도서관에서 접한 생생한 간접경험을 앞날의 교훈으로 되새겨 보면 어떨까.



▶나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나는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항상 상황파악을 정확히 했으며, 상대를 감동시킬 비장의 무기는 준비했는가.

〈동문단상〉 국민 곁으로 다가선 경찰



신 효 섭

· 행정학과 졸업 (88학번)
· 영동경찰서 방범교통과 과장

졸업을 앞두고 더 이상 고시에 매달릴 형편이 못 되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일째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간부후보란 시험이 있는데 합격을 하면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품위 유지를 위해 용돈도 지급하고 교육이 끝나면 파출소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달콤한 말이 귓가를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경찰공부가 지금은 천직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 생활을 하게 된 뜻밖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치안유지, 국가수호, 시위진압, 민생안정 등 시

대적 상황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해방 직후 치안질서유지, 6.25전쟁 때에는 국가수호, 유신시절과 민주화 이행기에는 사회안정, 민생치안 등의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부패, 무식하고 권위적인 집단, 권력의 하수인 등 수 없이 많은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먼저 해방이후 혼란기에 일제경찰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고, 자유당 말기와 4, 5공화국 시절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에 급급했고, 업무수행 방식이 권위적이고 비능률적이며 위압적이었고, 국민들로부터 경찰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이로 인한 국민적 무관심과 제도적인 문제점도 부정적인 경찰 이미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봉, 열악한 근무환경,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한 경찰관에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 채 깨끗한 경찰로 태어나기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소한 생계는 보장되고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야 경찰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경찰본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분을 뒤로한 생계형 버리가 없었으면 선배 경찰 대부분이 굶주림으로 아사했을 것이다 라는 자조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할 것 없으면 경찰이나 하지” 라는 말이 유행했던 기억하기 싫은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예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신임 순경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을 넘고 응시생의 90% 이상이 대졸출신으로 과거의 경찰과는 인적구성도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권위주의, 정치경찰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그리고 국민의 경찰로 거

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개혁을 실시하여 오늘날의 경찰이 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급인상, 근무방법 등 경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많은 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경찰은 비전과 발전이 무궁무진한 직업입니다.

경찰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며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관청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를 따지지 않는 참된 국민의 경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 최고의 일류경찰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중부권 최고의 대학인 우리 대학이 후배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발전후원회비 기탁자

성명	학번	학과	약정액(원)	성명	학번	학과	약정액(원)	성명	학번	학과	약정액(원)
가정과동문회		가정 과	300,000	김종훈	1972	축산학과	100,000	배재신	1987	토목공학과	100,000
가정관리학과동문회	1993	가정 관리학과	100,000	김준희	1991	수의학과	120,000	백수진	1992	식품영양학과	100,000
가정관리학과동문회	1995	가정 관리학과	100,000	김진구	1995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500,000	백승문	1999	교육대학원	50,000
가정관리학과동문회	1996	가정 관리학과	100,000	김진규	1976	연초 학과	10,000	변진수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000,000
가정관리학과동문회	1997	가정 관리학과	100,000	김진상	1979	토목공학과	2,000,000	보육교사교육원 11기생		보육교사교육원 11기생	1,400,000
가정관리학과동문회	1998	가정 관리학과	50,000	김창식		경영대학원(하) 경영학과	300,000	보육교사교육원 동문회		보육교사교육원 동문회	2,000,000
강신우	1961	농학과	10,000,000	김필수	1991	경영학과	30,000	산림대학원(산림경영학과)		산림대학원(산림경영학과)	200,000
강유주	2000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김현순	1985	토목공학과	240,000	산림대학원 토목공학		토목공학전공(5학기(11기생))	5,000,000
강호열	1984	건축공학과	10,000	김현호	1993	토목공학과	240,000	산림대학원 토목공학		산림대학원 토목전공	3,000,000
경찬호	1985	토목공학과	100,000	김혜란	1996	경영학과	110,000	서명식	1984	토목공학과	240,000
고영민	1991	수의학과	120,000	김홍목	1995	대학원 행정학	1,000,000	서영기		원예학과	50,000
고윤종	1989	무역학과	50,850	김홍석		고급법무지도자과정생(11기)	10,000,000	서장원	1965	농학과	100,000
고은경	1989	경영정보학과	10,000	김효경	1963	농공학과	20,000	서중원	1981	토목공학과	400,000
곽남주	1985	의학과	1,000,000	김효영	2001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성기명	1984	화학과	10,000
곽노선	1976	가정 교육과	100,000	김희경	1996	교육대학원	50,000	성창욱	1993	가정 관리학과	100,000
곽성규	1993	농업 경제학과	30,000	나영구	1979	경제 학과	50,000	손문철	1986	농공학과	10,000
곽정수	1963	농공학과	300,000	남근상	1979	경영학과	100,000	손오현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	10,000,000
구군우	2000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남기호	1991	경영학과	100,000	송석철	1974	토목공학과	500,000
구성만	1974	토목공학과	500,000	남상돈	1962	축산학과	50,000	송인석	1985	토목공학과	240,000
구천희	1983	토목공학과	100,000	남순식	1998	교육대학원	50,000	송종호		토목공학과	100,000
권소진	2000	대학원 구조시스템공학	1,200,000	남춘자	1991	수의학과	12,000,000	송창근	1986	의학과	500,000
권순복	1963	농학과	100,000	노건호	1989	사회학과	30,000	송창원	1988	토목공학과	100,000
권영진	1989	수의학과	120,000	도시공학과 도시계획연구실		도시공학과	100,000	송해화	1982	토목공학과	10,000
권오영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	10,000,000	도시공학과(의학)동문회	1989	도시공학과	200,000	식품영양학과(의학)동문	1992	식품영양학과	100,000
권용만	1959	약학대학	30,000,000	도시공학과(의학)동문회	1990	도시공학과	200,000	식품영양학과(의학)동문	1993	식품영양학과	160,000
권용오	1985	농업 경제학과	30,000	도종환	1973	국어 교육과	200,000	식품영양학과(의학)동문	1994	식품영양학과	140,000
권의석	1993	원예학과	30,000	라기동	1982	농생물학과	10,000	식품영양학과(의학)동문	1995	식품영양학과	70,000
권혁산	1981	경제 학과	50,000	라영선	1985	건축공학과	10,000	식품영양학과(의학)동문	1997	식품영양학과	60,000
권혁찬	1985	원예학과	10,000	류수영	1982	농업 경제학과	50,000	신광철	1965	농공학과	100,000
김경배	1982	농학과	100,000	류영구	1972	토목공학과	1,000,000	신병규	1991	수의학과	120,000
김공섭	1980	경제 학과	3,000,000	류지호	1988	수학과	10,000	신상미	2002	대학원 가정 관리학	50,000
김관순	1981	농화학과	10,000	류태상	2001	대학원 도시공학	100,000	신상호	1988	무역학과	10,000
김광식	1991	수의학과	120,000	류회구	1974	토목공학과	1,000,000	신성길	1981	사회학과	10,000
김교선	1981	사회학과	50,000	마낙영	1981	임학과	100,000	신세호	1981	임학과	50,000
김근태	1986	토목공학과	240,000	문창원	1994	토목공학과	240,000	신은철		토목공학과	500,000
김기승	1982	토목공학과	50,000	민경수	1984	사학과	10,000	신준호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	10,000,000
김기정	1990	토목공학과	240,000	민관기	1984	농업 경제학과	50,000	신현승	1980	토목공학과	500,000
김기환	1991	수의학과	120,000	민병진	1984	건축공학과	10,000	아동복지학과(의학)동문	1994	아동 복지학과	40,000
김남일	1992	무역학과	100,000	민선남	2002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아동복지학과(의학)동문	1996	아동 복지학과	30,000
김덕기	1969	농학과	100,000	민순덕	2000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아동복지학과(의학)동문	1997	아동 복지학과	50,000
김덕원	1989	수의학과	120,000	민홍기	1991	수의학과	120,000	(동북대학원) (의학)동문		아동 복지학과	1,000,000
김두중	1984	물리학과	30,000	박관석	1984	토목공학과	10,000	안복수	1991	토목공학과	240,000
김명숙	2002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박규환	1989	수의학과	120,000	안상로	1978	토목공학과	500,000
김미경	1987	환경 공학과	10,000	박노경	1988	경영학과	10,000	안영화	1972	연초 학과	100,000
김사석	1981	체육과	1,000,000	박병수	1989	수의학과	120,000	안원희		연초 학과	50,000
김상구	1983	토목공학과	120,000	박상수	1980	토목공학과	3,000,000	안월분	1999	교육대학원	50,000
김선희	2001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박세진	1993	연초 학과	50,000	안재명	1978	통계 학과	50,000
김성년	2002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박수범			500,000	안전공동문회		안전 공학과	1,000,000
김성년		행정대학원 고위정책(14기)	100,000	박연규	1979	농업 기계공학과	50,000	양승덕	1985	의학과	1,000,000
김순남	1984	재료공학과	10,000	박영숙	2002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양희문			100,000
김시영	1991	수의학과	120,000	박원식	1983	경제 학과	10,000	엄정식	1986	무역학과	50,000
김애란	1993	환경 공학과	10,000	박은정	2002	대학원 가정 학과	71,400	여운석	1984	환경 공학과	10,000
김영중	1982	무역학과	50,000	박익순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	10,000,000	연교흠	1974	화학공학과	500,000
김영호	1980	영어영문학과	50,000	박인석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	10,000,000	연제문	1981	토목공학과	1,200,000
김영호	1991	농업 경제학과	30,000	박인영	2001	대학원 가정 관리학	50,000	연제섭	1985	역사교육과	10,000
김완식	1972	토목공학과	1,000,000	박재업	1992	토목공학과	500,000	연제완	1983	연초 학과	10,000
김요식	1978	화학공학과	10,000,000	박정화	1994	공법학과	50,000	염기동	1983	수학과	50,000
김응오	1985	국어 국문학과	10,000	박종만	1983	원예학과	50,000	오대균	1952	축산학과	1,000,000
김인곤	1974	토목공학과	500,000	박찬용	1981	토목공학과	240,000	오명규	1991	수의학과	120,000
김재중		법무대학원	1,000,000	박창돈	1986	토목공학과	240,000	오문근	1969	농공학과	50,000
김재학	1981	토목공학과	500,000	박청홍	1961	농학과	200,000	오세철	1980	토목공학과	50,000
김정태	1985	원예학과	50,000	박춘희	1983	토목공학과	10,000	오예근	1986	의학과	1,000,000
김정환	1969	농공학과	300,000	박한성	1980	토목공학과	10,000	오은미	1982	가정 교육과	50,000
김종구	1987	의학과	1,000,000	박향자	1988	사학과	10,000	오은진	1989	회계학과	10,000
김종삼	1967	축산학과	100,000	박홍수	1988	농업 경제학과	50,000	오현경	1987	영어영문학과	10,000
김종욱	1952	축산학과	1,000,000	박희방	2002	대학원 행정학	200,000	우동균	1984	건축공학과	10,000

♥ 2003년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비를 기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발전후원회비 기탁자

성명	학번	학과	약정액(원)	성명	학번	학과	약정액(원)	성명	학번	학과	약정액(원)
우승우	1987	토목공학과	240,000	이정희	1964	가정 교육과	100,000	차종범	1979	토목공학과	10,000
우창남	2001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이조한	1985	의학과	1,000,000	채기욱	1989	수의학과	120,000
원미라	1988	통계학과	10,000	이종립	1981	토목공학과	50,000	채중식	1982	농생물학과	50,000
원종환	1971	토목공학과	1,000,000	이종호	1991	행정학과	150,000	채혁주	1983	연초학과	50,000
원찬식	1983	농업경제학과	50,000	이진석	1971	토목공학과	300,000	채후근	1983	경영학과	50,000
유길영	1979	행정학과	2,000,000	이진숙	1988	회계학과	10,000	채희삼	1982	농업기계공학과	10,000
유리나	1976	가정 교육과	200,000	이철순	1991	수의학과	120,000	창주지방법원			200,000
유명수		경영자과정 16기	1,000,000	이철희	1981	회계학과	10,000	충동문입원			100,000,000
유순주	2001	대학원 도시공학	100,000	이풍희	1996	산업대학원	10,000	최관영	1987	토목공학과	240,000
유승원	1975	체육교육과	1,000,000	이한복	1985	지리교육과	50,000	최낙정	1984	연초학과	100,000
유운기	1979	행정학과	1,000,000	이현숙	1988	미생물학과	10,000	최대립	1977	연초학과	50,000
유원상	1986	재료공학과	10,000	이형운	1989	수의학과	120,000	최대선	1974	토목공학과	500,000
유은희	1984	지리교육과	30,000	이혜립	1988	불어불문학과	10,000	최도숙	2002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유재희	2000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이호준	1985	토목공학과	100,000	최동준		토목공학과	500,000
유철승	2002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사과정	10,000,000	임대환	1971	토목공학과	200,000	최명규	2002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유형관	1978	농공학과	10,000	임덕수	1975	원예학과	50,000	최명선	1984	불어불문학과	10,000
윤도경	2002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800	임동천	1982	토목공학과	10,000	최병길	1981	국어국문학과	50,000
윤도용	1980	회계학과	10,000	임명순	1964	농학과	700,000	최병목		토목공학과	100,000
윤병균	1982	경영학과	100,000	임송명	1988	무역학과	10,000	최상화		물리학과	10,000
윤오복		도시공학	10,000	임윤미	1997	경영학과	30,000	최영환			50,000
윤완기	1983	식품공학과	50,000	임정희	1988	영어영문학과	10,000	최윤석	1981	법학과	200,000
윤재근	2002	대학원 도시공학	50,000	장봉석	1990	대학원 화학과	200,000	최필규	1989	수의학과	120,000
윤재욱	2001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장상두	1979	행정학과	10,000	최현배	1981	토목공학과	100,000
윤지주	2001	대학원 가정학과	50,000	장용식	1978	농업경영학과	500,000	충목회		토목공학과	3,500,000
윤충한	1981	행정학과	10,000	장우원	1984	영어영문학과	10,000	토목공학과 동문회		토목공학과	50,000,000
윤혜정	2002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장지학	1983	경영학과	50,000	하수용	1974	토목공학과	500,000
이광석	1982	화학공학과	50,000	전성진	1989	수의학과	120,000	한국자원관리동문회			7,000,000
이규범	1989	수의학과	120,000	전성철	1990	토목공학과	240,000	한상용	1979	토목공학과	10,000
이규확	1984	농화학과	10,000	전은정	1994	가정관리학과	100,000	한상용	1982	건축공학과	10,000
이기석	1959	체육과	100,000	전충삼	1987	경영학과	30,000	한상현	1986	토목공학과	240,000
이덕중	1981	화학과	10,000	정경아	1996	회계학과	30,000	한상효	1984	생물학과	10,000
이만우			50,000	정경희	1978	가정 교육과	50,000	한영희	1997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이명복	1969	축산학과	10,000	정근채			100,000	한은영	1988	정보공학과	10,000
이명순	1999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정금우	1979	축산학과	10,000	한장훈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1기	1,000,000
이문규	1989	행정학과	50,000	정기태	1968	약학과	50,000	한철희	1993	토목공학과	240,000
이문희	1965	농학과	600,000	정기택	1991	토목공학과	500,000	허백	1974	토목공학과	500,000
이미영	2001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정동영	1986	회계학과	10,000	허성원			100,000
이상률	1984	환경공학과	10,000	정동오	1995	대학원 전산학과	500,000	홍연표	1988	사회교육과	10,000
이상운	2002	대학원 가정관리학	50,000	정병덕	1980	농학과	50,000	홍은주	1987	수학과	10,000
이석구	1983	행정학과	50,000	정삼용	1989	수의학과	120,000	홍정의	1981	토목공학과	500,000
이성자	1999	교육대학원	50,000	정소영	1987	사회학과	10,000	홍찬희	1980	농업경제학과	50,000
이소영	1988	환경공학과	10,000	정순영	1983	농업경제학과	50,000	홍현웅	1982	식품가공학과	10,000
이순미	1989	회계학과	10,000	정영숙	2001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50,000	황근성	1981	입학과	50,000
이승수			100,000	정완용	1984	경영학과	50,000	황보현조	1981	사회학과	10,000
이영희	1980	토목공학과	10,000	정응섭	1980	토목공학과	10,000	황오연	1990	교육대학원	100,000
이용석	1991	수의학과	120,000	정중택	1985	의학과	500,000	황전구	1984	농업경제학과	50,000
이용순	1972	가정 교육과	50,000	정현기	1981	토목공학과	10,000	김란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20,000
이용희			10,000	정현선	1980	회계학과	100,000	남순해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원교			100,000	정호영	1977	농업경제학과	50,000	류나정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은봉	1982	농학과	1,000,000	조경문	1966	축산학과	100,000	오명륜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50,000
이은춘	1981	경영학과	1,000,000	조광현	1965	농학과	100,000	오선미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응걸	1980	경영학과	50,000	조권형	1976	농업경제학과	100,000	윤기창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20,000
이인수	1976	농업경제학과	50,000	조만동	1983	사학과	10,000	이명섭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재남	1984	건축공학과	10,000	조민숙	1988	수학과	10,000	이수정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재동		토목공학과	500,000	조민자	2002	대학원 가정학과	71,400	이준철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50,000
이재명			50,000	조오희	1983	영어영문학과	50,000	이지연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재봉	1975	농업경제학과	100,000	조완희	1975	입학과	100,000	이혜연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30,000
이재선	1977	가정 교육과	50,000	조은영	2001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71,400	장혜경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재영	1991	경제학과	50,000	조세순	1972	가정 교육과	100,000	정선필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10,000
이재익			100,000	조중진	1971	토목공학과	1,000,000	홍정유		경영대 대학원 생국제경영	50,000
이재현	1962	농공학과	3,000,000	조현주	2002	대학원 가정관리학	50,000	최고경영자과정 27기생		박종현의(최고경영자과정 27기생)	10,000,000
이재형	1979	토목공학과	10,000	조현철	1986	건축공학과	10,000	최고경영자과정 28기생		배석훈의(최고경영자과정 28기생)	10,000,000
이재환			100,000	주성하	1994	법학과	50,000	최고경영자과정 29기생		홍두표의(최고경영자과정 29기생)	10,000,000
이정준	1993	행정학과	50,000	지성현	1991		100,000	최고경영자과정 30기생		조원일의(최고경영자과정 30기생)	10,000,000
이정환	1993	행정학과	50,000	진미경	1989	경영정보학과	10,000	최고경영자과정 31기생			

♥ 2003년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비를 기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외부인사 및 교원 기탁자

기간 : 2002. 3. 1 - 2003. 2. 11일 현재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외부 인사											
갑 손	청주백화점 회장	1,000,000	오 규 섭	법과대학	1,000,000	최 옥 범	인성지이넷 대표	100,000	송 기 용	정경자원(충청)공회(충청)대표	1,000,000
가만복(충청)행사	가나인국제항공여행사	1,000,000	오 세 탁	명예교수	200,000	최 은 정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100,000	송 만 강	농과대학 축산학과 교수	1,000,000
강 봉 희	경영대 시간강사	100,000	오 세 화	보육교사교육원 시간강사	100,000	최 은 희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100,000	송 종 준	법과대학 교수	1,800,000
강 진 경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오 주 환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100,000	최 정 숙	예반 대표	500,000	송 창 섭	농과대학 농공학과 교수	300,000
강 현 모	충주어중 교장	100,000	우 수 경	보육교사교육원 시간강사	100,000	최 춘 식	서울그라운드연구원	1,000,000	신 방 응	총장	1,000,000
경기수의약품(주)	경기수의약품(주)	1,000,000	원 득 재	(주)동남택시	3,000,000	현 영 우	한국선박협회	100,000	신 영 철	학생처장(충청)과 63년입학	3,000,000
괴산고추기부		100,000	유 천 근	퇴임직원	100,000	허 진 무	한국선박협회(충청)지역	100,000	신 원 섭	농과대학(충청)부교수(충청)7학년	500,000
구 분 길	구분길피부과(의원) 학부모	3,000,000	윤 경 회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100,000	홍 순 돈	홍소(의)의원 원장	500,000	신 주 식	농과대학(충청)교수(충청)7학년	1,000,000
국 보 재 약	국보재약(주)	1,000,000	윤 정 숙	연세대학교 주커링학과 교수	300,000	홍 이 경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신 호 철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1,000,000
권 오 석	건설안전협회 고문	1,000,000	윤 정 자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홍 재 형	국회의원	1,000,000	안 성 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0,000
권 오 석	서울고속주식회사	1,000,000	이 갑 레	다우유 대표(학부모)	1,000,000	홍 태 우	청주농협사원지점	100,000	안 승 호	경과대학 경영정보시스템학과 교수	100,000
권 주 형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이 경 우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황 덕 숙	충북대우제국(국정)	300,000	양 덕 조	자연대 생명과학부 교수	1,000,000
권 호 태	문화공간출판사 대표	3,000,000	이 기 언	한진토탈테크	500,000	황 미 영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양 만 표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1,000,000
권 경 숙	보육교사교육원 시간강사	100,000	이 남 기	사범대학 명예교수	300,000	K T F	KTF	2,000,000	양 종 택	경영대 경영학부(의)도서관장	3,000,000
김 기 래	개신상사	1,000,000	이 내 준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LG카드(충청)지점	LG카드(충청)주지점	11,800,000	오 청 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500,000
김 나 영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100,000	이 동 국	한국토지공사	2,000,000	교 원					
김 대 연	경영대학장 부속실	300,000	이 명 진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김 동 익		50,000	이 병 관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강 신 열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1,000,000	유 인 호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수(7학년)	1,000,000
김 득 현	백두강과 대표	1,800,000	이 상 록		200,000	강 종 복	사범대학 지도교육과 교수	1,000,000	윤 혜 미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교수	100,000
김 미 현	학연산동동기출연무인 행정실	100,000	이 상 훈	충북지역개발회	500,000	강 중 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00,000	이 강 훈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1,000,000
김 상 규	구내사점 대표	1,000,000	이 순 상	보육교사교육원 시간강사	100,000	강 형 기	사회과학대학(충청)과(충청)대	2,000,000	이 광 호	공과대학도사공학과 교수	500,000
김 선 풍	농산개발(주)	1,000,000	이 승 섭	대신 대표	100,000	강 형 기	사회과학대학(충청)과(충청)대	2,000,000	이 기 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200,000
김 영 섭	상자기부	500,000	이 양 희	충북농업기술원장	100,000	구 봉 근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1,000,000	이 동 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000
김 영 섭	수동합자회사	500,000	이 익 규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구 창 덕	농과대학 산림과학부교수	1,000,000	이 동 원	법과대학 교수	1,800,000
김 정 용	토우건설(주) 대표	1,000,000	이 장 오	포스코건설	3,000,000	권 수 애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이 병 곤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교수	1,000,000
김 정 원	시립테크	500,000	이 재 선	서원상사 대표	100,000	권 효 식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교수	1,000,000	이 사 영	경과대학 경영정보시스템학과 교수	100,000
김 중 휘	인문학영어영문학과(의)교수	1,000,000	이 재 인	전농협충북지역본부장	100,000	김 경 호	공과대학장	2,000,000	이 소 영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교수	100,000
김 주 석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이 제 록	경영대 시간강사	100,000	김 기 남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200,000	이 소 혁	농과대학 농공학과 교수	500,000
김 준 석	사람의말 회장	100,000	이 종 명	(합)신양건설 대표	1,000,000	김 동 원	자연과학대학(충청)생물교육원장	500,000	이 영 진	교무처장	1,000,000
김 창 기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이 태 화	유니산산업(주)	5,000,000	김 두 영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교수	1,000,000	이 영 진	법과대학 교수	1,800,000
김 천 호	충청북도교육감	1,000,000	이 한 식	명예교수	100,000	김 석 일	한진토탈테크(충청)지역(충청)대	2,000,000	이 용 조	인문대학 고미술학과 교수	1,000,000
남 상 천	명예교수	1,000,000	이 해 정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100,000	김 성 철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1,000,000	이 은 희	법과대학 교수	1,800,000
넥스진바이오텍	넥스진바이오텍	1,000,000	이 호 복	청일건설(주) 대표	2,000,000	김 수 갑	법과대학 교수(법학)80학번	1,800,000	이 재 구	농과대학 농화학과 교수	1,000,000
노 수 열	청주농협사원지점	100,000	이 호 영	팔도건설	100,000	김 승 택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200,000	이 재 기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1,000,000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충북대출장소	150,000,000	익 명		500,000,000	김 승 환	사범대학(충청)교수(7학년)	2,000,000	이 재 료	법과대학 교수	1,800,000
대한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1,920,000	임 영 철	독지가	2,000,000	김 영 기	경과대학 경영정보시스템학과 교수	100,000	이 재 목	법과대학 교수	1,800,000
류 응 모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장 상 자	보육교사교육원 시간강사	100,000	김 영 수	약학대학(충청)과(충청)대	1,000,000	이 춘 수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100,000
민 현 숙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장 해 자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김 영 철	전전컴퓨터 교수	1,500,000	이 회 숙	생물대(충청)생물학과(충청)대	100,000
바이오라네스	바이오라네스	주식2만주	전 명 일	(주)자전거지니어링	300,000	김 영 희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교수	300,000	이 회 순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1,100,000
박 계 현	LG-NSystems 대표	1억5천만원	정 갑 면	학부모	1,200,000	김 운 주	생물대(충청)생물학과(충청)대	200,000	임 기 명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2,500,000
박 남 순	OK장 대표	100,000	정 미 숙	명공사 대표	200,000	김 원 재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의과)학장	1,000,000	임 병 덕	인문대학(충청)교수(충청)7학년	5,000,000
박 범 혁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정 승 연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김 운 구	법과대학 교수	1,800,000	장 공 자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000,000
박 병 금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정 완 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100,000	김 운 배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1,000,000	장 봉 우	자연대(충청)생물학과(충청)대	1,080,000
박 상 현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정 유 선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김 응 구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000,000	정 구 보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00,000
박 상 현	미디어본인 대표	500,000	정 의 현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김 정 화	농과대학 농공학과 교수(충청)대	1,000,000	정 영 숙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교수	300,000
박 수 정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150,000	정 창 호	대한과학상사	1,000,000	김 주 업	경영대학	1,000,000	정 우 태	약학대학(충청)과(충청)대	1,000,000
박 용 흡	현대건설	200,000	정 태 일	퇴임직원	500,000	김 중 권	법과대학 교수	1,800,000	정 재 권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300,000
박 종 만	(주)에프에스마을 대표이사	1,000,000	제 진 훈	삼상캐피탈	8,800,000	김 향 숙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00,000	정 찬 문	생물대(충청)생물학과(충청)대	1,000,000
박 장 민	넥스진바이오텍 부사장	200,000,000	조 규 천	한양대학교 토목과 교수회장	200,000	김 현 숙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00,000	조 경 욱	자연대(충청)체육학과(충청)대	3,000,000
박 장 식	창원상공회의소장	1,000,000	조 동 삼	명예교수	1,000,000	김 현 준	자연대(충청)체육학과(충청)대	1,080,000	조 성 찬	농과대학(충청)기계학과(충청)대	1,000,000
박 채 순		200,000	조 상 국	(주)가우건설	1,000,000	김 흥 은	농과대학(충청)과(충청)대	2억5천만원	조 수 종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500,000
배 권 자	도성기근 대표	1,000,000	조 용 신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노 병 호	법과대학 교수	1,800,000	조 완 섭	경과대학 경영정보시스템학과 교수	100,000
배 희 선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조 주 영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노 인 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1,000,000	조 완 섭	사범대학(충청)교수(충청)7학년	1,200,000
백 인 명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조 진 숙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	101,400	문 동 철	약학대학 교수	2,000,000	조 태 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1,000,000
부 광 약 품	부광약품	1,000,000	조 찬 수	(주)가우건설	300,000	민 경 현	경영학과 조교	200,000	조 태 훈	사범대학(충청)인문교육과 교수	200,000
부생리집(의)원	생활대(충청)대학생리집(의)원 행정실	500,000	(주)경기고속		1,000,000	박 강 우	법과대학 교수	1,800,000	조 향 훈	부생리집(의)원(충청)대	1,000,000
삼상계(의)원	삼상계(의)원(충청)대	6,000,000	(주)농협충북유동		1,000,000	박 경 욱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0	지 차 호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의과)학장	2,000,000
선정보시스템	(주)자전거지니어링	1,000,000	(주)대원고속		1,000,000	박 대 균	사범대학(충청)교수(충청)7학년	5,000,000	차 상 훈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00,000
설 진 성	(주)자전거지니어링	500,000	(주)서울부속	대표 조승식	200,000,000	박 내 온	사회대 행정학과 교수	300,000	최 병 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500,000
송 동 현	금성가스	100,000	(주)선광		100,000	박 상 일	농과대학 농공학과 교수(충청)대	1,200,000	최 승 룡	회계학과 조교	200,000
송 문 자	명관한식 대표	3,000,000	(주)리라이그로	(주)이이(의)원(충청)과(충청)대	1,000,000	박 세 민	법과대학 교수	1,800,000	최 운 정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200,000
송 승 회	동원건설(주) 대표이사	1,000,000	(주)플러스	대표 이석우	1,000,000	박 완 구	인문대학(충청)교수(충청)7학년	2,500,000	최 중 명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송 승 회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주)흥화종합건설		1,000,000	박 의 숙	기회연구처장	4,000,000	황 재 훈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100,000
송 현 갑	경과대학(충청)과(충청)대	1,000,000	차 주 원	대한건설사(충청)충북지사 회장	1,000,000	박 인 근	사범대학(충청)교수(충청)7학년	2,000,000	황 희 연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1,200,000
송 형 철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채 명 순	무교동일식(대표)	1,000,000	박 재 문	대학원장	2,000,000	한 규 영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500,000
신 동 민	신동민노과(학부모)	3,000,000	채 수 삼	백운안	100,000,000	배 현 덕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2,000,000	한 충 수	농과대학(충청)과(충청)대	1,000,000
심 재 복	주생리집(의)원(충청)대(충청)대	3,000,000	채 훈 관	영동대학교 총장	2,000,000	백 기 업	농과대학 원예학과 교수	2,000,000	허 연 섭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충청)대	1,000,000
심 흥 섭	전 사무국 경리과 경리과장	1,000,000	최 장 이태호	회장 이태호	1,000,000	사 동 민	농과대학 농화학과 교수	1,000,000	현 태 선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00,000
안 민 동	국보재약(주)	1,000,000	최 진 제 약	청진제약	1,000,000	생물대(충청)생물학과(충청)대	생활과학대학 교수일동	798,600	홍 해 경	국제경영학과 조교	200,000
연 승 준	경영대 시간강사	50,000	최 선 식		3,000,000	성 연 희	수의과대학(충청)과(충청)대	1,000,000	황 재 훈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100,000
오 관 순	생활대 이동복지학과 시간강사	100,000	최 연 주	생활대 주커링(의)학과(충청)대	100,000	성 진 근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2,000,000	황 희 연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1,200,000

♥ 2003년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비를 기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직원 기탁자

기간 : 2002. 3. 1 - 2003. 2. 11일 현재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약정액(원)
강 동 식	도서관	240,000	김 회 욱	학생기숙사	240,000	양 승 관	도서관	240,000	이 중 혁	총무과	360,000
강 문 회	예비군연대	120,000	나 기 철	제5행정실	500,000	양 승 천	연구지원과	120,000	이 중 회	학생지원과	240,000
강 태 회	전전검부	240,000	남 대 현	학사관리과	120,000	양 진 경	보건진료소	120,000	이 준 호	학생지원과	240,000
강 희 춘	도서관	240,000	남 대 현	교무과	360,000	양 찬 수	평생교육원 행정실장	740,000	이 지 숙	국제교육원	120,000
고 명 욱	경리과	120,000	남 순 란	경리과	240,000	엄 기 일	공동실습관	100,000	이 진 규	제6행정실	120,000
고 상 대	시설과	120,000	남 윤 범	도서관	1,200,000	연 경 흘	경리과	240,000	이 창 규	도서관	360,000
고 적 준	시설과	120,000	노 상 익	총무과	120,000	연 숙 희	제8행정실	120,000	이 철 우	사대부설고 행정실	240,000
곽 신 종	학사관리과	240,000	노 용 호	제6행정실	240,000	연 은 옥	학생지원과	120,000	이 철 호	제6행정실	120,000
곽 영 권	총무과	120,000	노 재 승	제8행정실	240,000	연 제 분	제2행정실	120,000	이 해 재	연구지원과	120,000
곽 영 남	총무과	120,000	노 재 훈	학생지원과	1,000,000	연 제 환	총무과	120,000	이 회 창	제8행정실	200,000
곽 영 봉	총무과	120,000	라 인	시설과	360,000	연 철 흥	전산정보원	240,000	임 동 순	경리과	240,000
곽 옥 부	기획과	120,000	류 경 식	제6행정실	120,000	연 해 원	총무과	120,000	임 만 섭	제5행정실	240,000
곽 태 영	시설과	360,000	류 재 춘	제4행정실	500,000	오 규 욱	제2행정실	360,000	임 명 원	총무과	500,000
곽 한 역	총무과	120,000	류 중 수	학생지원과	240,000	오 미 현	시설과	600,000	임 병 철	학사관리과	600,000
구 분 결	도서관	240,000	류 호 관	시설과	600,000	오 병 헌	제7행정실	100,000	임 북	연구지원과	500,000
권 의 경	제8행정실	120,000	류 회 영	총무과	120,000	오 영 옥	학사관리과	120,000	임 원 정	학생지원과	240,000
권 재 모	예비군연대	240,000	류 용 분	총무과	120,000	오 완 진	제6행정실	120,000	임 천 순	제3행정실	240,000
권 혁 자	제4행정실	120,000	문 자 원	제5행정실	120,000	오 중 순	교무과	120,000	장 순 중	시설과	240,000
길 길 문	시설과	360,000	민 순 욱	제5행정실	120,000	오 현 근	시설과	360,000	장 영 상	총무과	120,000
김 경 달	시설과	360,000	박 경 애	학생지원과	240,000	왕 중 은	시설과	120,000	장 미 경	지부장 유정우	1,000,000
김 경 완	제6행정실	240,000	박 근 택	총무과	120,000	우 갑 수	시설과	360,000	전 미 경	학사관리과	120,000
김 경 환	사무국 사무국장	1,000,000	박 노 화	제7행정실	120,000	우 중 운	시설과	360,000	전 민 호	도서관	360,000
김 경 회	도서관	240,000	박 묘 섭	제5행정실	120,000	우 중 윤	박물관	240,000	전 찬 주	학생처 학생지원과	500,000
김 대 중	학사관리과	120,000	박 미 진	제6행정실	120,000	우 중 현	시설과	120,000	정 규 상	제6행정실	360,000
김 도 우	도서관	360,000	박 미 환	교무과	360,000	우 창 성	제8행정실	240,000	정 규 호	학사관리과	600,000
김 동 영	기획과	300,000	박 부 수	총무과	120,000	유 무 욱	시설과	360,000	정 금 연	도서관	120,000
김 명 구	도서관	360,000	박 상 우	경리과	120,000	유 순 열	총무과	120,000	정 대 회	제3행정실	120,000
김 명 식	학사관리과	200,000	박 상 원	전산정보원	240,000	유 승 권	연구지원과	360,000	정 명 수	제5행정실	120,000
김 명 신	기획과	500,000	박 상 임	보건진료소	120,000	유 원 형	교무과	360,000	정 병 호	전산정보원	120,000
김 명 자	학생지원과	120,000	박 상 학	학사관리과	200,000	유 인 기	시설과	120,000	정 상 경	도서관	300,000
김 문 배	총무과	120,000	박 성 회	학사관리과	120,000	유 인 한	도서관	120,000	정 선 화	도서관	120,000
김 미 경	제8행정실	120,000	박 순 해	학사관리과	240,000	유 정 우	제1행정실	120,000	정 숙 자	제6행정실	120,000
김 미 영	제4행정실	120,000	박 승 순	제6행정실	120,000	유 평 모	총무과	240,000	정 영 훈	취업정보과	120,000
김 미 회	제5행정실	120,000	박 시 현	제5행정실	240,000	유 호 분	제2행정실	120,000	정 운 상	총무과	120,000
김 봉 기	시설과	360,000	박 영 순	제7행정실	120,000	육 심 흥	학사관리과	240,000	정 진 이	제7행정실	120,000
김 봉 채	기획연구처 기획과(과장)	1,000,000	박 영 회	제8행정실	120,000	윤 순 근	도서관	360,000	정 진 혁	연구지원과	240,000
김 사 현	시설과	600,000	박 오 순	전전검부	120,000	윤 영 숙	총무과	120,000	정 찬 숙	취업정보과	120,000
김 선 영	대학신문사	120,000	박 재 현	시설과	120,000	윤 지 영	제8행정실	120,000	정 태 현	제8행정실	120,000
김 선 희	총무과	500,000	박 중 우	도서관	240,000	윤 효 중	도서관	240,000	정 학 룡	예비군연대	100,000
김 성 수	경리과	360,000	박 중 현	시설과	120,000	이 강 남	제7행정실	120,000	정 현 수	제6행정실	120,000
김 성 은	도서관	360,000	박 회 자	총무과	100,000	이 기 봉	시설과	120,000	정 현 희	교무과	120,000
김 연 배	시설과	360,000	박 용 집	경리과	120,000	이 기 섭	제8행정실	240,000	정 회 금	제1행정실	120,000
김 연 회	제4행정실	120,000	방 해 숙	총무과	120,000	이 기 훈	시설과	120,000	조 미 정	취업정보과	120,000
김 영 란	제8행정실	120,000	배 대 식	연구지원과	1,200,000	이 대 석	총무과	500,000	조 용 주	시설과	120,000
김 영 순	전산정보원	120,000	변 상 갑	총무과	120,000	이 대 연	국제교육원	300,000	조 원 기	예비군연대	120,000
김 영 욱	제7행정실	100,000	상 형 진	총무과	360,000	이 동 기	제7행정실	370,000	조 일 래	시설과	120,000
김 영 욱	제1행정실	120,000	사 인 식	총무과	600,000	이 미 원	교무과	120,000	진 상 예	제1행정실	120,000
김 영 우	전산정보원	240,000	서 해 철	경리과	240,000	이 병 국	도서관	240,000	진 충 달	경리과	240,000
김 영 일	제7행정실	120,000	석 미 정	기획과	620,000	이 북 남	제2행정실	120,000	채 금 욱	도서관	120,000
김 영 환	교무과	600,000	성 기 호	제7행정실	500,000	이 상 길	시설과	120,000	채 주 석	학생지원과	240,000
김 영 회	총무과	120,000	송 만 호	제7행정실	120,000	이 상 곤	도서관	240,000	채 현 숙	학생지원과	240,000
김 영 희	제5행정실	120,000	송 영 호	총무과	120,000	이 상 미	학사관리과	120,000	최 난 희	시설과	120,000
김 완 수	총무과	240,000	송 재 문	도서관	360,000	이 상 태	기획과	600,000	최 병 구	제6행정실	240,000
김 용 석	제4행정실	120,000	송 재 철	기획과	500,000	이 성 기	시설과	360,000	최 봉 기	총무과	120,000
김 용 수	총무과	120,000	송 진 호	제8행정실	100,000	이 순 동	학생기숙사	360,000	최 성 섭	총무과	120,000
김 운 영	교무과	240,000	송 해 철	제6행정실	240,000	이 승 오	제3행정실	200,000	최 운 정	교무과	120,000
김 은 수	도서관	120,000	신 광 섭	제1행정실	360,000	이 영 미	도서관	360,000	최 일 수	시설과	120,000
김 은 숙	박물관	120,000	신 금 수	제1행정실	120,000	이 영 숙	도서관	120,000	최 정 수	박물관	120,000
김 재 성	도서관	600,000	신 대 호	시설과	120,000	이 영 식	사무국 경리과	500,000	추 교 군	시설과	120,000
김 재 원	제3행정실	120,000	신 배 식	사대부설고 행정실	240,000	이 영 애	제1행정실	120,000	하 준 용	경리과	120,000
김 정 남	제7행정실	120,000	신 봉 남	총무과	120,000	이 영 환	제3행정실	360,000	한 동 현	총무과	120,000
김 정 순	도서관	120,000	신 용 식	총무과	120,000	이 예 북	시설과	600,000	한 병 철	도서관	360,000
김 중 문	시설과	360,000	신 중 우	제3행정실	120,000	이 예 숙	제7행정실	100,000	한 상 천	제6행정실	240,000
김 중 진	전전검부	240,000	신 진 호	전산정보원	240,000	이 용 수	제6행정실	120,000	한 화 진	도서관	240,000
김 중 기	총무과	120,000	신 창 섭	제6행정실	360,000	이 원 북	제7행정실	120,000	함 광 성	총무과	120,000
김 지 호	학사관리과	240,000	신 철	시설과	100,000	이 운 재	시설과	240,000	허 경	취업정보과	120,000
김 진 수	총무과	120,000	신 청 수	제5행정실	240,000	이 은 향	학사관리과	240,000	허 명 희	제2행정실	120,000
김 진 우	학사관리과	120,000	심 재 성	총무과	120,000	이 인 숙	시설과	120,000	홍 구 표	총무과	120,000
김 춘 식	도서관	240,000	안 계 후	도서관	360,000	이 자 일	전산정보원	120,000	홍 성 길	국제교육원	240,000
김 춘 환	전전검부	120,000	안 병 주	기획과	360,000	이 정 범	제4행정실	120,000	홍 일 의	시설과	120,000
김 풍 순	교무과	240,000	안 선 호	제2행정실	120,000	이 정 속	제7행정실	120,000	홍 창 희	기획과	240,000
김 학 란	보건진료소	240,000	안 성 근	시설과	360,000	이 정 숙	공동실습관	150,000	홍 현 숙	도서관	360,000
김 현	제8행정실	120,000	안 이 찬	총무과	120,000	이 중 백	시설과	120,000	홍 혜 식	전산정보원	240,000
김 형 기	총무과	360,000	안 종 완	총무과	120,000	이 중 영	기획과	500,000	황 선 중	제8행정실	100,000
김 형 식	제5행정실	360,000	안 현 선	학사관리과	120,000	이 중 의	시설과	120,000	황 영 관	제6행정실	120,000

♥ 2003년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비를 기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